



수시연구

2024-02

#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 :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Regional Art Activities  
Through Creative Hubs: Focusing on Overseas Cases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Regional art Activities Through Creative Hubs:  
Focusing on Overseas Cases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 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국외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 인구의 감소 문제가 대두되며 정책적 대안 모색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계 또한 위축되고 있음
- 중앙 정부 정책의 지역 이양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관련 정책을 지역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지역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술 정책에 대한 정책 계획 수립 및 고려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임
- 지역 정책에 있어 지역 거점은 중요한 정책 추진체로 지역 예술 분야에서도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는 지방시대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정책을 토대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 거점에 적용하여 보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현재의 지역 예술 정책에 있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 거점으로서의 '창작 거점'의 역할과 의미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 예술 활성화의 방향과 창작 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음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 지역 정책의 정책에 있어서의 지역 거점 정책 추진 현황
  - 지역 예술 활성화 의미와 정책 추진 현황
  - 최근의 지역 정책 경향과 지역 거점 정책 필요성 및 방향성
  -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이자 지역 거점으로서의 창작거점 국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창작 거점 제안
- 공간적 범위
  -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을 공간적 범위로 하되, 사례 분석의 경우 영국, 프랑스 등 국외 국가를 포함함
  - 2024년을 기준년도로 하되, 정책의 흐름 및 사례 분석 필요에 따라 개별 정책의 추진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의 경우 기존 지역 예술 활성화, 지역 예술 창작 활동, 창작 거점에 관한 정책 및 관련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국외 사례 기관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유관 자료의 검토함
  - 사례 조사의 경우 지역 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창작 거점의 국외 사례를 조사 연구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를 사례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각각의 국가에서 지역 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선행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적용한 정책 체계와 정책체계로의 창작 거점 사례를 분석함

### 3.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과 창작 거점의 필요성

#### 가. 지역 정책에 있어 지역 거점 정책

- 지역 거점의 개념은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간의 도시화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거점 도시를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정책 권한의 지역 이양에 따라 지역 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개별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간의 연계, 중앙-지역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 과정에서 거점 지역의 육성과 거점 도시에 필요한 핵심 시설로의 지역 거점시설의 조성 및 공간 기반 마련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지역의 문화, 예술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 거점은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교류 협력하며, 지역 혁신을 위한 자원을 공급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지역 예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문화 정책에서 지역 문화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논의는 이루지고 있으나, 지역 예술 거점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나. 지역 예술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현황

- 중앙정부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은 예술가 정책, 지역 문화 정책으로 양분되며, 예술가 정책의 경우 예술인 활동에 관한 정책에서 지역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단체나, 주요 예술단체의 예술을 지역에 선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은 지역민의 예술 향유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의 정주나 활동 지원 등 지역 예술가 지원에 편향되며, 대부분의 지원 또한 단발성에 그침

#### 다.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의 창작 거점

- 지역 예술 거점의 마련과 추진은 주로 문화기반시설의 형태로 조성 및 운영되었으나 예술 활성화의 초점이 지역민의 향유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예외적인 레지던시, 창작소 등의 창작거점만이 예술가 중심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기존의 창작 거점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은 부재하며 시설의 운영에 치중해왔었음
- 예술 분야의 지역 거점에 대한 조성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전략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4. 국외 사례 분석

### 가. 국가 주도 지역 창작 거점 : 프랑스

- 프랑스는 지역 예술 정책을 중앙 정부주도로 수립하며 지역이 이에 연계 협력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에서 창작 거점 역시 중앙 정부의 정책에 기초함
- 그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국립 예술기관 및 단체의 지역설치의 경우이며, 다른 유형 하나는 지역의 민간의 예술 기관 및 단체를 국가가 지역 창작 거점으로 인증하여 그 위상을 높이는 제도임
- 각 정책은 근거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추진되며, 예술 장르별 정책이 이루어지며, 각각 창작 거점은 위치한 지역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운영됨
  - CNAREP의 경우 거리예술 및 공공예술 장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국립 인증 민간 조직으로, 정부는 CNAREP의 선정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며, 운영은 레지던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과 예술가의 연계, 지역과 정부의 협력을 유도하며 지역 예술활동이 다른지역으로, 해외로 교류, 소개되어 지역 예술의 교류 거점역할을 수행함
  - 반면 브르타뉴 국립극장은 공연 예술분야의 창 제작 활성화를 위한 국립 드라 마센터의 지역별 전략적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에 국립 시설이 건립되는 경우로 프랑스 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창 제작 을 위해 국립 시설에 입주, 프로그램의 참여, 창 제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임

### 나. 지역 예술 주체간 협력체로의 창작거점 : 영국

- 영국의 경우 팔길이 원칙에 따라 중앙 정부가 최소한의 예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음
- 지역 창작 거점의 경우 창조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예술 생태계가 창조산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 예술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영국정부는 각각의 예술 관련 개인, 사람, 장소를 창작거점

으로 지칭하며 이들간의 협력을 강조함

- 이 과정에서 영국의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은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양한 예술 관계 주체간의 협력에 기반한 협력체, 협력 단체, 혹은 개별 주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도시 경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 예술 프로젝트, 지구단위 예술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작동함
- 대표적인 사례로의 게이즈헤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예술 작품 설치를 시도한 게이즈헤드 지역 예술 프로젝트와 이를 목적으로한 협력체 게이즈헤드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중앙 정부는 이처럼 지역 활력을 위한 프로젝트 단위의 예술 협력체에 대한 지원을 게이즈헤드를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협력체의 경우 필요나 사업의 목적에 의해 유연하게 변화함에 따라 게이즈헤드 이니셔티브는 뉴캐슬 게이즈헤드 이니셔티브로 변화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협력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창작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표 1〉 국가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창작 거점의 비교

국가	한국	프랑스	영국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관련 추진 마련 필요</li> <li>▪ 지역문화정책과 예술정책 가운데 일부 지역 예술 관련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도의 지역 문화예술 정책 수립</li> <li>▪ 중앙 정부는 예술 장르별 예술 생태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권역화 및 지역 대상 창조산업으로의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li> </ul>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지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예술 정책은 지자체</li> <li>▪ 지역 예술 생태계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 민간-민간 등 협력적 관계</li> <li>▪ 민간으로 점차 이동</li> </ul>
중앙정부의 지역창작 거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시설의 지역 분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의 국립시설 조성</li> <li>▪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의 지정 및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민간 창작자/단체의 창작 거점 지정</li> </ul>
지역의 창작 거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체적 창작 거점 조성 및 운영</li> <li>▪ 정책적 기능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민간 협력 창작 거점의 조성 및 운영</li> <li>▪ 지역 단위별 정책 지원 사업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지역 내 예술 관계 주체간의 협력 관계 지원</li> <li>▪ 지역 단위 내 활동 공공, 민간의 창작 거점화를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화</li> </ul>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시, 창작소, 입주예술가 간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시, 창작소, 국내외 인적, 물적 네트워크 허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한 협력을 통한 사업단위 프로젝트</li> <li>▪ 인적 창작 허브</li> </ul>

## 4. 결론 및 제언

### 가. 해외 사례분석 시사점 및 정책 고려 사항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로의 민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역 예술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 거점은 이를 위한 정책적 구심점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의 역할을 명확화 하여 각각이 예술가, 지역, 창작 거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립이 필요하며 예술가들이 지역민과의 관계와 소통에 적극적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을 넘어선 협력 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가가 특정 지역에 있으면서도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내 양질의 기획이 이루어져 예술이 창작에서 향유로, 또 예술가의 역량과 작품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 지역 예술의 활성화 추진체로 창작 거점을 설정하고 창작 거점이 우리나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 작동하며 연구, 창작, 정보와 지식의 집적과 교류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역 예술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심점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창작 거점은 예술가의 예술적 성장에 대한 지원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에 예술가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가가 활동 주기별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우리나라 지역의 예술을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넓게는 해외로 확대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 문화 경쟁력으로 지역 예술을 집적하고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자 연구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을 기반한 예술인 '거리예술 및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서론	3
1. 논의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b>제2장 지역 예술 활성화와 창작거점의 필요성</b> .....	<b>9</b>
제1절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현황	11
1. 지역 위기에 따른 정부의 지역 정책의 흐름과 동향	11
2.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현황	19
제2절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역 창작 거점	29
1. 지역 예술 거점의 개념과 접근	29
2. 기존의 지역 주도 예술 창작 거점	31
3.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역 창작 거점의 순기능	35
4. 소결 및 시사점	38
<b>제3장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거점 국외 사례 분석</b> .....	<b>41</b>
제1절 국가 주도 지역 창작 거점 조성 사례: 프랑스	43
1. 프랑스의 지역 예술 정책	43
2. 지역 예술 창작 거점 국립 인증 민간 조직 CNAREP	47
3. 장르별 지역 국립 창작 거점 기관 조성 NCDs : 브르타뉴 국립극장	62

제2절 지역 예술 주체간 협력체로의 창작 거점 : 영국	68
1. 영국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68
2. 영국의 지역 예술 창작 거점 : 지역 예술 협력 파트너십	7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5
1. 해외 사례 종합 분석	85
2. 국가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과 창작 거점 정책의 비교	88
<b>제4장 결론 및 제언 .....</b>	<b>91</b>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시사점 및 정책 고려 사항	93
1.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지역 예술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93
2.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 고려사항	95
제2절 창작 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97
1. 지역 예술 활성화 추진체로의 창작 거점 설정	97
2. 예술가의 예술적 성장에 대한 지원 체계로의 역할	99
3. 지역 예술 활동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확대	102
 <b>참고문헌 /</b>	<b>109</b>
 <b>ABSTRACT /</b>	<b>111</b>



---

## 표 목차

〈표 2-1〉 지자체별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예술인 활동 지원 분석	21
〈표 2-2〉 지역 혁신 공간의 요소,요형,기능	31
〈표 2-3〉 제 2차 지역문화실행계획에서의 분야별 지역 창작거점 현황 및 유관 정책	31
〈표 3-1〉 CNAREP 지정 현황	48
〈표 3-2〉 CNAREP 운영 재원에 대한 지역 지원금 규모(출처: 연구자 정리)	53
〈표 3-3〉 기타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	79
〈표 3-4〉 국가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창작 거점의 비교	90
〈표 4-1〉 광역 지자체의 거리예술, 공공미술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4.07기준)	107

# 그림 목차

[그림 2-1] 지역행복생활 추진 가이드라인	12
[그림 2-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 지역 연계와 협력 국토 정책 구상	13
[그림 2-3] 지역 혁신 거점의 구조와 커뮤니티 발달 경로	15
[그림 2-4] 글로벌 대구 인공지능(AI) 종합연구센터 단계적 추진방안	15
[그림 2-5] 국토부 혁신도시별 주요 신규사업과 거점 시설 조성	16
[그림 2-6] 과학문화 거점 센터 조성	16
[그림 2-7] 지역문화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18
[그림 2-8] 광주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26
[그림 2-9] 원주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26
[그림 2-10] 서산시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부	37
[그림 2-11] 아트케이션 고성(고성군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	37
[그림 3-1] 프랑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 정책 추진 체계	44
[그림 3-2] 13개 CNAREP 지정 및 위치 현황	50
[그림 3-3] Lieux Publics의 조직 체계	51
[그림 3-4] Sur le pont의 조직 체계	51
[그림 3-5] CNAREP의 운영 지원 정책별 지원 구조	53
[그림 3-6] Sur le Pont 공간 현황	54
[그림 3-7] Lieux Publics 공간 현황	55
[그림 3-8] CNAREP Lieux Publics의 프로그램	57
[그림 3-9] CNAREP 운영에 따른 주요 성과	59
[그림 3-10] 프랑스 국립드라마센터(NCDs)의 지역 분포 현황	63
[그림 3-11] 유럽 연극 컨벤션 네트워크	66
[그림 3-12] 북쪽의 천사 모형과 어린이들의 작품	74
[그림 3-13] 게이츠헤드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북쪽의 천사〉	74
[그림 3-14] 발틱 현대미술관	76
[그림 3-15] 세이지 게이츠헤드 음악당	76
[그림 3-16] 창작 거점 사례로의 Nova Iskra의 비즈니스 모델	81

[그림 3-17] 영국 창조적 허브 현황	82
[그림 4-1] 제주청년센터 지역 거점 지정	97
[그림 4-2] Les Frigos 전경	99
[그림 4-3] Les Frigos 실내 전경	99
[그림 4-4]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가 활동주기별 지원사업의 소개	100
[그림 4-5]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전경	102
[그림 4-6]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실내 전경	102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제1장

# 서론



# 제1절 서론

---

## 1. 논의 배경

1)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예술계 위축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

- 최근의 지방 인구의 감소 문제가 대두되며 정책적 대안 모색이 전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 예술계와도 직결되는 상황임
- 수도권으로 대부분의 예술 인프라와 예술인구가 밀집되면서 지역 예술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가 위축 또는 함께 소멸되는 문제로 이어짐
- 지역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축소는 수도권 예술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며 지역 예술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지역 예술 정책 논의와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

- 지방자치제도의 추진 및 문화 분권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개별 지역 주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음
  - 지역 문화 예술 정책이 지방시대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점차 지역 주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감소함
  - 중앙집권 문화예술 정책에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의 정책적 역할의 구분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법」의 수립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역문화진흥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의 예술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 법정 문화예술분야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정부가 수립한 「지역문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유일함

- 지역단위에서 수립하는 문화예술정책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지역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지역 예술가의 활동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0년 제 2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제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음

- 각 지역 단위 예술 정책은 중앙 정부의 예술 정책을 토대로 각 지역마다 수립하는 정책임에 따라 중앙 정부의 지역 예술 정책에 관한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지역 위기와 지역 예술계 위축의 상황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 지역 별 정책적 대안 모색에 앞서 국가 단위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 예술 측면에서의 지역 거점 논의의 필요

- 지역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거점은 지역을 둘러싼 정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문화 정책의 지역 거점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는 등 문화부문에서도 지역 거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상 전 분야에서 지역 거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술 분야에서의 지역 거점을 통한 예술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전달 체계 논의는 부재한 상황임
-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예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지역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모색이 필요함
  - 지역 예술 활성화는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관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이 중요함
  - 다만 추진의 과정에서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 정부와 지역의 정책을 반영하여 예술가의 예술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예술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역 예술 활성화 추진 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 지역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지역 예술 정책과는 별도로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예술 분야, 특히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관한 정책 전달 체계이자 지원 체계 논의를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함
- 이에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관한 정책 거점 체계를 본 연구에서는 ‘창작 거점’으로 지칭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2. 연구 목적

- 연구는 지방시대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정책을 토대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 거점에 적용하여 보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현재의 지역 예술 정책에 있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 거점으로서의 ‘창작 거점’의 역할과 의미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 예술 활성화의 방향과 창작 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음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내용적 범위

- 지역 정책의 정책에 있어서의 지역 거점 정책 추진 현황
- 지역 예술 활성화 의미와 정책 추진 현황
- 최근의 지역 정책 경향과 지역 거점 정책 필요성 및 방향성
-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이자 지역 거점으로서의 창작거점 국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창작 거점 제안

#### 나. 시공간적 범위

-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을 공간적 범위로 하되, 사례 분석의 경우 영국, 프랑스 등 국외 국가를 포함함
- 2024년을 기준년도로 하되, 정책의 흐름 및 사례 분석 필요에 따라 개별 정책의 추진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함

### 2. 연구 방법

#### 가. 문헌 조사

- 기존 지역 예술 활성화, 지역 예술 창작 활동, 창작 거점에 관한 정책 및 관련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 자료의 검토

- 국외 사례 기관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유관 자료의 검토

## 나. 사례 조사

- 지역 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창작 거점의 국외 사례를 조사 연구함
- 국외사례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를 사례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각각의 국가에서 지역 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선행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적용한 정책 체계와 정책체계로의 창작 거점 사례를 분석함
  - 프랑스 사례의 경우 문헌 조사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해당 사례 기관의 실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문 회의를 통한 자문조사를 실시함
  - 다만 영국 사례의 경우 직접 정책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여 자문조사를 실시한 Rebecca Farley의 2018년도 자문 인터뷰 자료와, 사례에 관한 온·오프라인 연구자료 등 문헌 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함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제2장

# 지역 예술 활성화와 창작거점의 필요성



## 제1절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현황

---

### 1. 지역 위기에 따른 정부의 지역 정책의 흐름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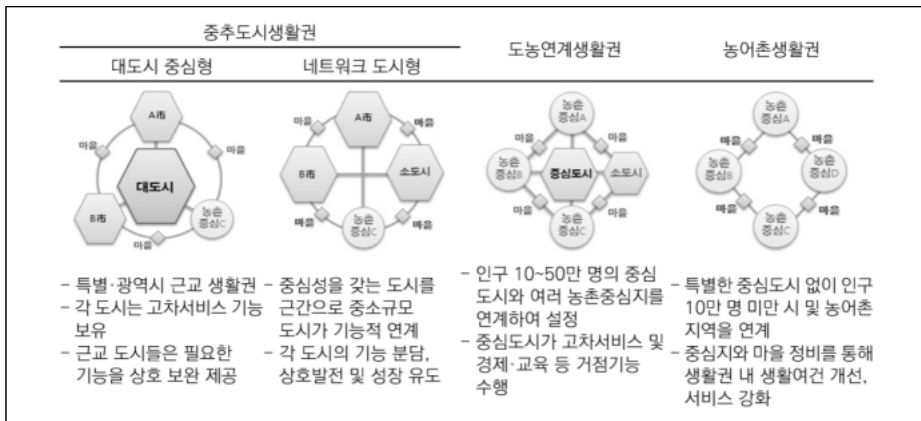
- 국내 지역과 예술의 정책의 검토를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에 앞서 정책적 방향에 있어 지역과 예술에 대한 정책적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가. 정부의 지역 정책 흐름과 전개

- 2000년대 이전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광역대도시권 설정, 경제 자유구역의 설정 및 관련 정책 등 지역에 대한 하향식 정책이 중점 추진되어 왔음
- 2003년 참여정부에 따라 도시화 심화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을 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논의를 시도하기 시작함
  -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를 창설하며,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음
- 이명박 정부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창조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며, 지역의 특화 발전이 취약함, 지역 주도 발전의 역량 부족, 지역 간의 경쟁 등으로 인식하였음
  - 이에 주요 정책 목표로는 지역 개성 특화 발전, 지역 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 발전 등을 제시하였음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주민의 일상 중심의 지역 정책을 추진함
  - 이 과정에서 지역은 행복 생활권의 개념으로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인프라, 일자리, 문화, 복지를 충족할 수 있으며,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을 지향하였음

- 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지역 생활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중심 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 차원으로의 공공서비스와 상업 서비스가 마련되고 각각이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음
- 이는 지역에서의 도시-농어촌간 구조적 차이는 유지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의 중심지에서 마을 하나하나로 이어지는 거점과 유사한 개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 지역행복생활 추진 가이드라인



출처: 김선기 외, 2015, 19쪽의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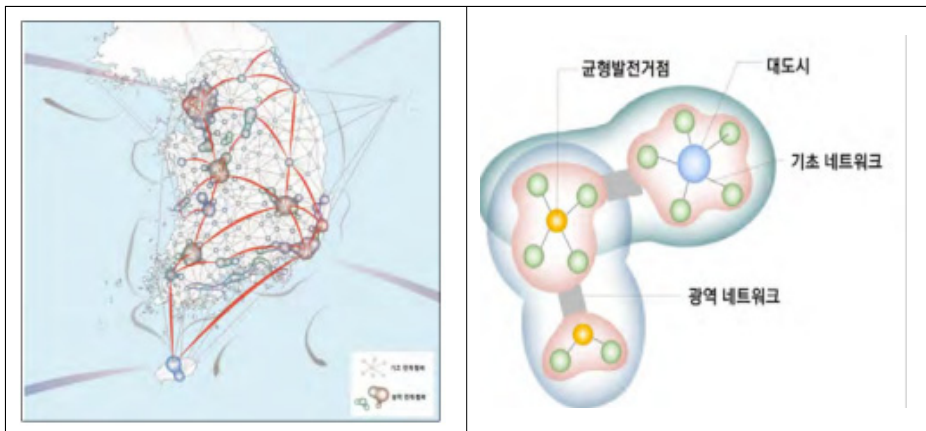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중추 거점의 육성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을 목표함
  - 이는 오늘날의 지역 정책에서 지역 거점 설정의 방식 추진의 토대로, 각 도시간 협력은 균형발전의 거점을 분야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교육, 의료, 문화와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문화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기술을 적용한 생활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정책임
  - 균형 발전의 거점과 지자체간의 연계 협력은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기반이 되며 지역이 협력에 정책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지역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면서 각 개별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지역 사업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의해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여 왔음



## 나. 현 정부의 지역 정책

- 지역주도형 예술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확보가 우선되어 왔음
  - 최근의 수도권-지방의 격차, 저성장으로 접어든 경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인구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지역 위기가 심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국토교통부, 2019)를 수립함
- 지역 정책의 큰 방향으로 지역 거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지역정책의 큰 방향으로 정부는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산업, 교통, 관광, 문화 등 분야별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지역 정책의 방향임
  - 특히 거점 지역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통에 기반한 상호 지역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 지역간, 지역 도시간 협력과 연계를 유도하고 있음(인근원외, 2011)
  -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정책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서부터 신규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축 구상은 그림 2-1과 같음

[그림 2-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 지역 연계와 협력 국토 정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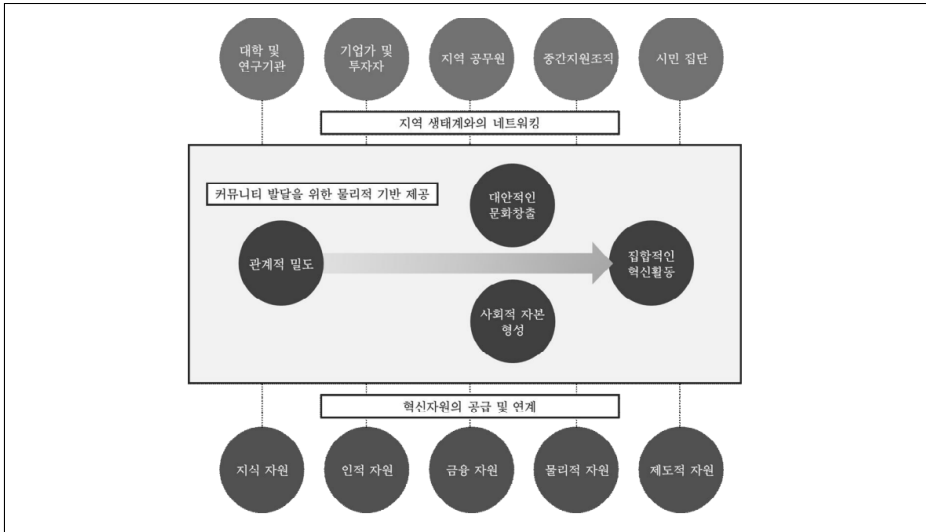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19 (좌)34쪽 그림 2-6, (우)43쪽 그림 3-6

- 국토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지역이 지역 특성 발전 방향 고려 지역 혁신성장 계획 수립 되며, 이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됨
- 이 과정에 서 인구 감소와 국가 경제의 저성장 예측에 따라 과감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다. 지역 거점 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 거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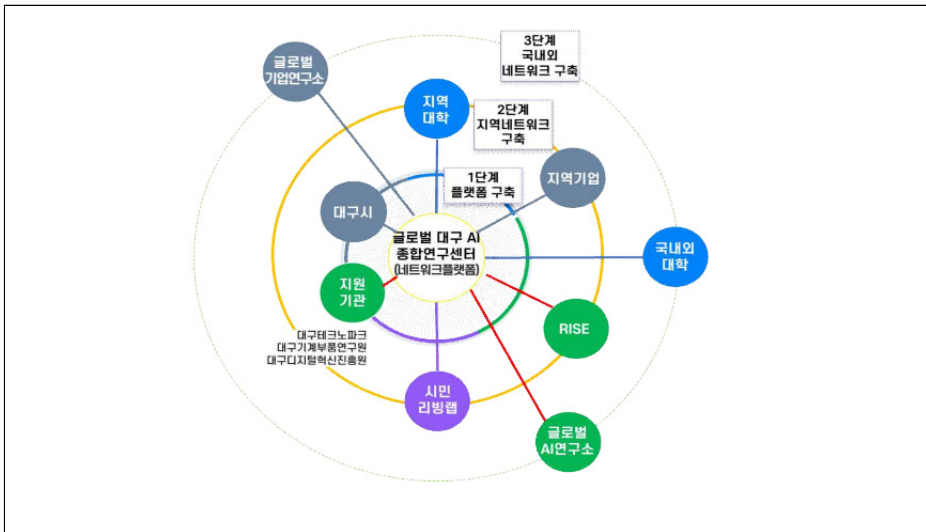
- 기존의 지역거점은 주로 국토를 기준으로 특정 도시를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으로 마련하고 이를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남
  - 도시 수준의 지역 거점은 공공서비스와 핵심 인프라를 특정 거점 도시에 밀집시키고 이를 다른 지역, 도시들과 연결시키는 형태로 나타남
-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종류에 따라 정책 사업이 달리 나타나고, 그 일환으로 거점 시설 또한 논의 되기 시작함
- 지역 거점시설은 각 개별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공간과 시설의 형태로 마련되는 인프라를 지칭함
  - 여기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는 2014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포함함
- 최근에는 지역의 거점시설은 지역 혁신의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의 혁신을 위해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관련 기업, 시민과 연계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의 AI 종합연구센터를 제안하고 있음

[그림 2-3] 지역 혁신 거점의 구조와 커뮤니티 발달 경로



출처: 조성철 외, 2023, 요약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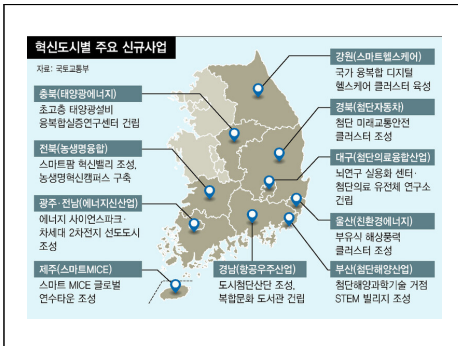
[그림 2-4] 글로벌 대구 인공지능(AI) 종합연구센터 단계적 추진방안



출처 : 윤상현(2024), 글로벌 대구 인공지능종합연구센터 설립방안,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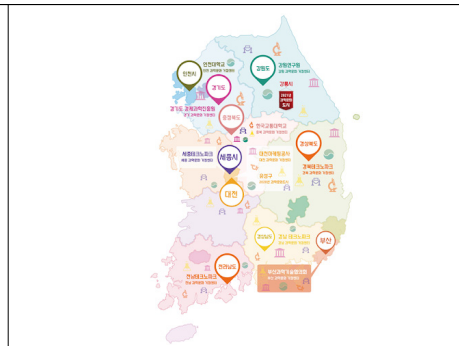
- 이러한 지역 거점의 조성과 추진은 각 지역마다 지역 혁신을 위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정책의 추진 부처와 실행의 방식을 통해 나타나기도 함

[그림2-5] 국토부 혁신도시별 주요 신규사업과  
거점 시설 조성



출처: 한겨레, 4조3천억 투입...“10개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2018.10.25.일재

[그림2-6] 과학문화 거점 센터 조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년 과학문화 거점 센터 및 과학문화 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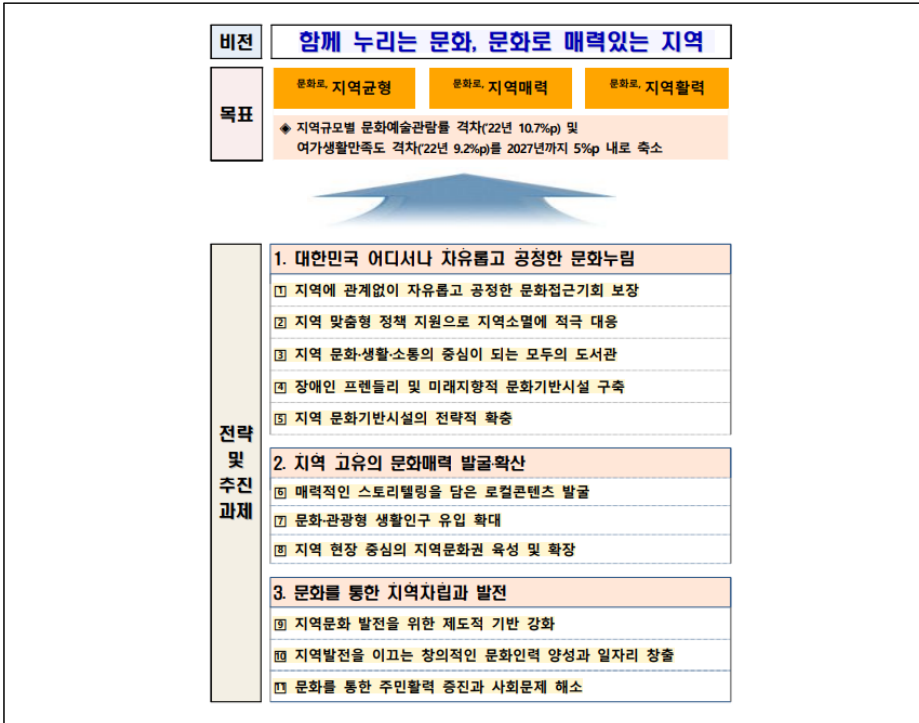
- 국토부의 경우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의 차원에서 각 혁신도시의 특화 따른 거점시설을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연동하여 정책적 거점으로 시설이 조성 및 육성됨
-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는 지역 과학문화 정책수립, 다양한 과학문화 주체 발굴·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건립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됨
- 과학문화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조성 및 운영함
- 그러므로 지역거점1)은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과 관련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고, 상호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역 혁신을 위해 자원을 공급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1) 조성철 외(2023)은 지역거점을 지역혁신공간으로 지칭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를 지역 혁신공간으로 재 개념화한 바 있음(조성철 외, 2023)

## 라.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서의 지역 거점 논의 현황

-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20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문화부의 지역 문화예술 정책은 국정 기조 및 국가 균형발전에 준하고 있음
  - 추진 방향은 1)지역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2) 지역 간, 지역 내 주체간, 세대간 문화를 통해 연결, 동행하는 것을 제시함
  - 전체 전략으로는 문화 접근성 향상, 지역 위기에 대한 극복 목적으로의 정책 지원, 도서관을 통한 지역 문화 생활 거점 공간화, 친 장애 및 미래지향적 문화기반시설 구축, 전략적 문화인프라 확충, 유휴 자산의 문화적 활용 등을 다루고 있음
- 지역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지역 거점 관련 정책은 정책 전략 단위에서 나타나며, 기존 정부의 지역 거점 위주의 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한계가 지역 내 또 다른 격차를 야기함에 따라 지역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으로의 전략적 방향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지역 거점의 핵심 대상을 인구 감소지역, 중소도시, 거점도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모에 기반하여 중점 추진함
- 지역 문화 정책에서의 지역 거점은 주로 지역민의 향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지역민 중심의 문화 예술 거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도서관 역시 도시의 규모와 지역민의 촘촘한 생활 내 제 3의 공간이자 네트워킹 공간, 지역 활력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의 문화, 생활, 소통 중심 거점으로서의 작동을 지향함
  - 박물관의 경우 국립 중앙박물관은 지역 소속관을 중심으로, 국립 미술관은 지역 이전 및 건립 등을 통해 지역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작동하도록하며 지역별 최저 배치 충족 여부와 노후도에 따른 확충 및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외에 기타 지역문화기반시설로의 공연장, 이스포츠 경기장, 전통 문화시설 등을 조성 및 수립하고 있음
  -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문화 교육, 체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의 조성 및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그림 2-7] 지역문화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문체부(2023),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6쪽

- 지역 예술가와 지역 예술 차원의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 위한 거점 체계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 지역 문화 정책에서 예술 정책은 문화와 분리되어 별도 수립되지도 않지만, 지역 문화 정책 내에서 세부 사업이나 시설 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준임
  - 이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국민,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예술가, 예술생태계와 관련한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함
-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측면에서의 지역 문화 예술의 혁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지역 거점의 역할이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생태계 기반의 지역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지역 문화 정책에서 지역 문화 생태계, 지역 예술 생태계에 관한 문화적 거점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지역 위기에 따라 지역 예술계 또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의 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 예술 거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2.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지역 정책이나 문화분야의 지역 거점과는 별개로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역이 각각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가. 중앙 정부의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정책

#### 1) 예술정책 차원에서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 문화부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책은 1)예술가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정책, 2)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정책의 경우 지역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예술가들을 지원하여 ‘지역 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문체부의 『2022문화예술정책백서』에 따르면 예술정책의 경우 1) 예술인 복지 증진 체계 마련,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3)공연예술 창작 유통 지원 체계 강화, 4) 일상 속 문화가치확산, 5)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책은 예술인의 창작 안정망 사업을 통한 창작환경과 권리 보호의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의 활동에 있어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이러한 지원의 경우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음
  - 기업과 예술의 만남(메세나)와 관련한 정책의 경우지역 민간을 대상으로 매칭하여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성화매칭펀드 사업’ 등이 있음
  - 이 경우 사업의 목적이 지역 내 민간의 메세나를 통한 예술 후원 및 기부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가의 지역 내 예술 활동은 이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경우 지역 내에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국립단체나 수도권의 주요 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역에

### 배급하는 형태임

- 이는 정책 사업이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동의 의미를 정주와 작품 공표를 통한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마련 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과 ‘신나는 예술여행’을 들 수 있음
-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은 지역의 문예회관을 통한 문화예술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으로 우수 민간 예술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이나 국공립 단체의 프로그램 등을 공연, 배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2024년 문체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에 예산을 미편성하여 지속되지 않고 있음
- ‘신나는 예술여행’의 경우 지역에 있어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 위원 회원회가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예술가가 지역으로 찾아가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향유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술 단체의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효과도 창출 할 수 있음
- 그러나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물리적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일 뿐이며 예술가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순회 공연함으로써 문화 소외 지역의 지역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 이는 지역에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2)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 지역문화정책의 경우 예술가의 예술 활동 관련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지역 간 문화격차 획일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문화 정책을 ‘지역 균형’, ‘지역 매력’, ‘지역 활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지역의 고유 문화 매력을 발산하고,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며, 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문화 자생력을 제고하고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문화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함
-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매개인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가와와는 구분됨
- ‘지역문화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취약지역 지원사업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원사업은 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예술가의 예술 활동 보다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 마련 또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에 보다 가까움
- ‘지역문화 활력 공연 사업’의 경우 ‘신나는 예술여행’과 유사한 형태로 국·비 예술단체가 지역방문 공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부 지역예술단체를 활용하여 공연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성과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정책

- 지자체의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함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가운데 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과 관련한 정책 사업을 정리한 결과는 <표 2-1>임<sup>2)</sup>

<표 2-1> 지자체별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예술인 활동 지원 분석

지자체명	예술인 지원 정책	예술 기반 정책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정책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반 예술인 지원 확대</li> <li>■ 창작준비금 확대</li> <li>■ 기본수당(기본소득)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 부족에 따른 개선 방안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 도립예술단 운영(20~)</li> <li>■ 강원 도립 극단 운영(20~)</li> </ul>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형 예술인 복지 지원 모델 구축</li> <li>■ 예술인 창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내실화 및 도시문화시설 확대</li> <li>■ 창작 공유 공간 발굴 및 조성</li> <li>■ 무장애, 찾아가는 기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2) 해당 분석은 각 개별 지자체가 수립한 「제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가 「제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직접 사업 또는 지역 문화 재단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및 유관 사업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명	예술인 지원 정책	예술 기반 정책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정책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창작촌 조성 및 라키비움 구축</li> <li>예술인 복지센터 지정 및 운영</li> <li>예술인 명예의 전당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도청 중심의 문화기반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개정 및 정비</li> <li>지원사업 정비</li> <li>비평장르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생활문화플랫폼 확대</li> <li>노후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li> <li>경기에코뮤지엄 조성 및 운영</li> <li>콘텐츠별 클러스터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예술단체 간 상생협력 기반 상주단체 육성 및 창작공간 지원</li> </ul>
광주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복지지원사업</li> <li>지역예술인 공연창작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문화예술</li> <li>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연습센터 및 상설공연 운영</li> <li>꿈의 오케스트라 광산</li> </ul>
대구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예술가 육성지원</li> <li>문화예술기획자 양성</li> <li>예술인 복지/파견 지원</li> <li>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li> <li>무형문화재 전수/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조성(간송미술관, 공공미술프로젝트 등)</li> <li>창작 공간 지원(창작스튜디오, 아트스트리트, 예술발전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상주단체 지원</li> <li>(6개 공공 공연장 및 상주단체 운영)</li> </ul>
대전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전속 작가제 공모사업</li> <li>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및 정보화추진</li> <li>창작물 유통망 개선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휴공간 기반창작공간 확충</li> <li>공유형 예술창작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시장 상생전략 수립</li> </ul>
부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생활 복지 지원</li> <li>문화-산업 생태계 구축</li> <li>전문문화예술인력 양성 및 관련기관 유치</li> <li>기획 인력양성(예술전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타운조성(아트-파레)</li> <li>소극장 활성화 지원</li> <li>문화포털(문화예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확대</li> </ul>
서울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처우개선 및 창작 안정망 구축(예술생태계 조성)</li> <li>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 중심의 예술공간 확충 및 운영</li> <li>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li> <li>권역별 기반시설 건립</li> <li>서울시 통합수장고 조성 등</li> <li>리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화수분(지역예술인 경제활동 지원)</li> <li>장영실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사업</li> <li>예술인 복지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앱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세종시립예술단 창립 및 운영)</li> </ul>
울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 예술인복지센터</li> <li>울산아트스튜디오 기반 지역 대학연계 예술가 역량강화</li> <li>예술인복지정책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센터 설립 및 사업 추진</li> <li>창작지원제도 및 제도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 예술인의집 조성</li> <li>울산아트스튜디오</li> <li>울산문화실험실</li> <li>전통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아카이빙+산업 공간 기반조성</li> <li>산업사실 재생</li> <li>울산문화예술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단체의 경우 산업 연계 특화 문화예술콘텐츠 및 공간 조성 사업에 연계 추진 및 운영</li> </ul>
인천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운영</li> <li>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li> <li>예술인 창작지원</li> <li>예술인-기관 매칭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도심 재생 연계 문화시설 조성</li> <li>기초 지자체 지역별 기반 시설 건립 지원 및 연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지자체명	예술인 지원 정책	예술 기반 정책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정책
전라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세나 기반 지역 예술가 지원</li> <li>공모과제 발굴 및 지원</li> <li>공간 연계 창작활동 지원</li> <li>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미술관 조성 및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별 균형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립국악단 운영 및 시·군단위 공연예술단과 협력 체계 구축</li> </ul>
전라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 인력 내 예술 인력 포함</li> <li>기초예술진흥과 지역특성화 지원</li> <li>예술인복지 고도화</li> <li>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li> <li>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 성차별 대응 체계 구축</li> <li>청년, 예술인, 대학 예술관련 학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예술인 창작 전용 공간 (융합형 공간)조성</li> <li>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확대 설립지원, 활동지원</li> <li>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 (예술인 창업지원 육성)</li> </ul>
제주 특별 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예술인 창작지원 공공, 민간 운영 공간활성화 지원</li> <li>온라인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희공간 등 문화재생으로의 예술공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 없음</li> </ul>
충청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사업</li> <li>충남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li> <li>예술인 창작지원</li> <li>예술인 기업파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립미술관 건립, 시설 리모델링 등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예술단 국제 문화 교류 추진 및 해외 공연</li> <li>충남-ODA 문화 교류</li> </ul>
충청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플랫폼 구축</li> <li>문화예술 창업 멘토링 강화</li> <li>문화예술 협력위원회 구축 및 거버넌스 정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단위 문화예술시설 구축(영화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공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li> <li>지역 단체 중심 메세나 지원</li> </ul>

출처: 연구자 정리

## 1) 지역민 예술 향유/활동을 위한 예술가 활용 중심의 지역 문화 진흥 정책

- 지역 주민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인한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정책의 한계가 존재함
  - 제 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서는 대부분 생활문화,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예술 활동 촉진 및 향유 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예술 정책에서 예술가에 관한 정책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자치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민 주도 지역 문화예술 정책 방향이 우선되기 때문임
- 예술가를 위한 예술 활동의 기회로 지역 예술 축제나 전시회 같은 행사를 마련하거나, 혹은 작품을 설치하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의 의미를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동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만들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술가 관점 보다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경우 정치적, 행정적 주요 대상으로의 지역민이 지역 예술가에 비해 더 넓고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지역 예술 활동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이 예술가의 활동의 질에 따라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예술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에 담당자들끼리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예술가를 이해하거나 예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지역 예술 활동 관련 정책 사업 담당자 A)

- 지역은 예술가를 지역민 예술 경험의 매개인력으로 두는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반면 직접적 예술 활동 지원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음
  - 지역 예술 향유 정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는 예술가를 예술 강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가를 지역 예술 교육의 인적 매개자로서의 활동 지원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서 예술가로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기예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예술 향유 및 경험을 위한 활동에 지역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지역민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예술가들의 창작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임
  - 혹은 예술가 창작 및 대외 활동 지원 정책과 지역민의 향유 정책이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고, 창작과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공연분야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공연단 및 상주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들의 활동이 곧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로 이어지도록 함. 그 외 민간 예술 단체의 지원, 공연 기반 시설을 활용한 예술 창작 및 활동의 지원, 공연 예술에 특화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 예술 활동 기회 마련 등이 대표적임
  -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개별 예술가들의 창작 및 활동 지원에 대부분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벽화 미술 제작 및 거리 조성 사업, 공공 미술 설치 관련 사업(아트스트리트,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창작 및 전시 활동 지원, 협회, 지역 미술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해당됨
  - 전통예술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풍물굿, 마당놀이 등 전통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지원함

- 다른 장르(문학 등)에서의 예술가 예술 활동 지원은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지역민의 향유로 이어지기 어려운 특성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학의 경우 창작촌 형성을 통해 예술가들이 창작 공간(레지던시)를 제공하거나, 창작촌에 모인 예술가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나타남
  - 문학 분야의 예술가 활동 지원은 주로 창작 활동에 국한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문학분야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출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출판 및 유통 과정에서 지역민의 향유로 특정화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움

## 2) 지역 내 예술가를 위한 예술 정책으로의 편향

- 예술가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예술가 복지와 예술가 창작지원으로 구분되며, 예술가 복지의 경우 지역 예술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로 지역 내 예술가들의 생활, 복지 등 지역 내 정주, 생계를 유지하는 여건에 관한 정책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예술가 이탈을 막기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창작 환경 조성을 주 목표로 함
  - 예술가가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지역 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중요함
  - 이에 지자체들은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생활 및 정주 환경지원으로 금전적 지원 및 공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작업실이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지자체가 추진 중인 예술가의 지역 정주 및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은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지역에서의 정주 및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정주 및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은 소수의 예술가들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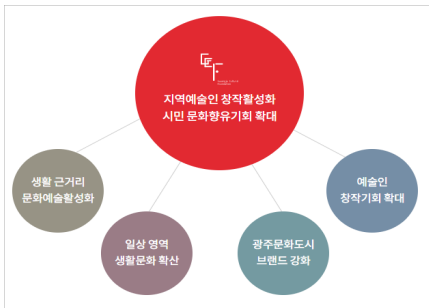
- 이는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지원 정책 기간 동안의 유지 외에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이라 보기는 어려움

- 예술가 유치 사업을 제외한 예술가의 지역 활동 관련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예술가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예술 지원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지역 예술인으로 제한함

[그림 2-8] 광주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출처: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사례]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 강원도 원주시의 예술지원사업은 목표를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기획자, 생활예술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원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로 명시함
- 이에 사업의 대상은 원주 내 문화예술인·단체, 문화기획 활동가,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출신, 활동자에 제한함

[그림 2-9] 원주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기획자, 생활예술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원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한다.	
주요내용	
사업기간	18 ~ 22년
사업대상	원주(금강문화재단)지역 내 문화예술인·단체, 문화기획 활동가,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출신, 활동자
사업내용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기획자, 생활예술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원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한다.

출처 :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이에 지역 외부에서 지역으로 유입되기를 희망하는 예술가들의 지역 유입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함
- 예를 들어 광주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이나 원주 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활동 예술가에 한함
  - 이는 최근의 관계 인구 즉,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관계를 맺고 다른 지역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입을 고려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있어 지역으로부터 예술 지원 수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결국 지역 예술가 정책은 지역 예술계에 대한 외부 예술가의 유입을 축소시키고, 지역 예술계의 폐쇄성을 확대하여 지역 예술계의 위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춘천시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가가 아닌 타 지역의 예술가들 또한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 단발성 지역 예술 활동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

- 지역 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 활동 지원 관련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대부분은 단발성 기회 마련이 중심임
- 이러한 단발성 예술 활동이 지역 내에서 많이 일어 나게 되면 사업의 양은 많아지 나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예술가들이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여건이나 필요에 의해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여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지장을 주게 됨

\*\*시의 경우 워낙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 13억에서 코로나 이후 6억으로, 2024년 기준은 10억으로 예산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산의 변동성이 크다보니 관련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획하기 어려워요. 예산의 부족 또는 변동은 예술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요.

(전문가 B)

- 이는 사업의 수명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 간의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업의 수행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일회성 사업을 위한 인력 지원은 행사 차원으로 치고 있어요. 이에 상호 연계 협력하고 기관간의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역 축제와 관련한 예술가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부서와,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한 재단 안에 있는데 상호 부서가 다르고 지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지역 예술 활동 관련 정책 사업 담당자 A)

-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지역 예술 전반의 정책적 방향성보다는 정치적 관심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지역 대표 축제나 예술가 활동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경우 지역 행정상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음
- 예술의 활동 계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이 경우 정치적 여건과 상황이 바뀌면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계기가 중도에 사라지기도 하며,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단기적이고 단발성 성과 창출에 보다 집중될 수 밖에 없음

\*\*시는 지역 예술정책이 거의 없다가 지역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다고 느낀 시의원이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예술 활동 관련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서 추진되었어요. 예술로 거리를 조성하고 예술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추진한 거죠. 취지는 좋은데 정작 예산 확보는 급하게 이루어지다보니 2600만원으로 운영되는데, 행사는 하지만 제대로 된 예술 활동 지원이나, 예술 창작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를 위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예산 한도 내에서 행사만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게 문제예요. 아직 이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적 정책 논의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 예술 활동 관련 정책 사업 담당자 D)



## 제2절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역 창작 거점

---

### 1. 지역 예술 거점의 개념과 접근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지역 예술 거점은 별도로 분류된 바 없음
  - 그 원인으로는 첫째, 지역 예술 활성화가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지역 문화 정책을 비롯한 지역 정책은 지역민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 정책 내에서 지역 정책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둘째, 지역 예술계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의 거점시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예술 기반시설의 조성이 지역 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지지 않아 왔기 때문임
- 기존의 예술 거점으로 볼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로는 지역민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향유시설(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등)과 예술가의 창작 거점(레지던시, 창작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술 향유 시설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장소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성의 방식이 각 유형별로 매우 상이함
- 미술관과 공연장은 그동안 시설 조성의 방향이 개별 지자체의 조성 되어 왔으며, 국립시설의 경우 지역 예술 정책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예를 들어 국립 미술관의 경우 분관 형태로 조성되어 서울에 본관이 있으며 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조성과 네트워크 범위와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지역에 조성 또는 조성 예정인 상황임
  -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시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으로의 건립 및 조성이 된 경우 매우 그 수가 적고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지역 거점 시설 차원에서 운영, 활용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 지역 건립 지역 예술 시설은 지자체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조성 및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점이 필요하지만 지역에 예술 시설이 부재한 경우도 있음

■ 지역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적 거점 기능을 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창작거점으로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의 창작 거점은 예술가들의 지역에서 예술 창작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적, 비물리적 공간 또는 장소를 의미함
- 이 장소들은 조성의 목적이 예술가들의 지역에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간 내에서 지역 혁신 공간으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곳을 지칭함<sup>3)</sup>
- 해당 유형의 공간은 지역 예술 활동의 주체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예술가와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위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할 수 있음

■ 지역 혁신 거점의 기능을 토대로 지역 예술계에 이를 적용하여 볼 경우 기대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 지역민,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 예술 분야 관계자들 등 다양한 지역 예술계를 둘러싼 관계자들간의 교류의 역할
- 지역 외부에서 온 예술가, 예술 관계자 등 외부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예술 기업, 예술 관계자 및 지원기관, 그 외 지역의 주요 협력 가능한 관계자, 기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진입, 정착,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예술가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예술가의 활동이 지역민의 예술 향유와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 교육 등이 제공되는 보육 성장의 역할
- 예술가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점이

3) 지역 혁신 공간으로의 요소 및 기능은 조성철 외(2023)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를 토대로 함

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 내에서의 예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지역에  
서 예술가들간의 협력적 지역에 대한 리서치와 협력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들 수 있음

〈표 2-2〉 지역 혁신 공간의 요소,요형,기능

거점 요소	역할과 기능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와 창작 거점간의 접점 마련</li> <li>창작거점으로서의 지역민 유입 및 참여 확대</li> <li>다양한 구성원간 교류와 연대 촉진</li> </ul>
유입 및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 단계별 외부 예술가, 예술 인재의 지역 커뮤니티 편입 지원</li> <li>창작거점과 외부 협력 기업, 기관, 관계자 간의 연계 촉진</li> </ul>
성장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 성장 단계별 빠른 예술 성장을 뒷받침 하는 지원 체계 구축</li> <li>창작자 커뮤니티의 문화, 활력을 지역 사회로 파급하는 마중물 역할</li> <li>예술 창작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공유를 통한 지역 내 예술 활동의 내발적 역량강화 및 확산</li> </ul>
협력과 공동창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체 공동의 필요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창작 거점이 예술을 기반으로 협력 모델 발굴 및 확대</li> <li>새로운 창작 활동과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제도적, 지원사업을 통한 협력 매개 확대</li> <li>지역에 유입한 예술가들간 상호 창작 역량과 연구의 협력을 통한 공동 창작의 거점 센터 기능</li> </ul>

출처: 조성철외, 2023, 요약6쪽의 표3 부분 편집

## 2. 기존의 지역 주도 예술 창작 거점

- 지역 예술 정책에서 창작 거점은 주로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다루어짐
  - 2024년 현재 기준 지자체는 장르별 창작 거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sup>4)</sup>
  - 혹은 지역의 소속 예술단체와 이들을 위한 운영 공간에 관한 정책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음

〈표 2-3〉 제 2차 지역문화실행계획에서의 분야별 지역 창작거점 현황 및 유관 정책

지자체	시각예술	공연 예술	문학	공예	음악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원 양지리 레지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립예술단/도립극단 운영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천예술촌</li> <li>김유정문학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구백자박물관 백토마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음악 창작소</li> </ul>

4)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제 2차 지역문화실행계획」에 따라 해당 계획에 명시된 지역 문화 실행 계획 추진 체계로의 창작 거점에 한하여 파악한 것으로 산하 재단 및 기타 연관 창작 거점이 별도로 존재 할 수 있음

지자체	시각예술	공연 예술	문학	공예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li> <li>춘천 예술 소통공간 곳</li> <li>강릉레지던시 far east</li> <li>춘천예술촌</li> </ul>	따른 공간 운영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예술창작센터</li> <li>창작스튜디오 자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예술창작센터</li> <li>행암문예마루</li> <li>박경리문학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세라믹창작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음악 창작소</li> <li>뮤지시스</li> </ul>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청년예술창작촌</li> <li>구미예술 창작스튜디오</li> <li>영천예술 창작스튜디오</li> <li>148아트스퀘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치원문학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8아트스퀘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음악 창작소</li> <li>뮤지시스</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단체 육성 및 창작공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양 음악 창작소</li> <li>구리 음악 창작소</li> <li>양평 음악 창작소</li> </ul>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연습센터 및 설공연장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음악 창작소</li> <li>피크뮤직</li> </ul>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달천예술창작공간</li> <li>대구예술발전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상주단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음악 창작소</li> </ul>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미예술창작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음악 창작소</li> </ul>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도심 창작공간운영지원센터</li> <li>홍티아트센터</li> <li>감만창의문화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도심 창작공간운영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도심 창작공간운영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음악 창작소</li> <li>뮤직랩부산</li> </ul>
서울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천예술공장</li> <li>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희문학 창작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당 창작 아케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포음악 창작소</li> </ul>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실 스튜디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음악 창작소</li> <li>누리락</li> </ul>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스튜디오131</li> <li>북구예술창작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트스테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경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음악 창작소</li> </ul>

지자체	시각예술	공연 예술	문학	공예	음악
	소금나루 2014 ▪ 감성경도				
인천 광역시	▪ 유희공간 활용 창작공간화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전라 남도	▪ 장안창작마당 ▪ 국제레지던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흥분청문화박 물관 창조공방 ▪ 국제레지던시	▪ 전남음악창 작소오감통
전라 북도	▪ 팔복예술공장창작 스튜디오 ▪ 전주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	▪ 해당없음	▪ 전주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 ▪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 진주실크레지던 시	▪ 전북음악창 작소 레드콘
제주특별 자치도	▪ 가파도 아티스트 인레지던시 ▪ 예술꽃산양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주음악 창작소 JEMU
충청 남도	▪ 남산문화창작소 ▪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 서산문화재단레지 던시	▪ 해당없음	▪ 서산문화재단레 지던시	▪ 해당없음	▪ 충남음악 창작소
충청 북도	▪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 해당없음	▪ 가흥예술 참고	▪ 가흥예술 참고	▪ 충주음악 창작소

출처: 연구자 정리

- 일부 지역에서 예술가의 지역 유입 및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예술 창작 거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
- 지자체는 유희공간을 창작 공간화 하려는 계획은 많은 반면 창작 거점의 운영 내실화나 활성화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창작공간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공, 민간 운영 예술공간을 통한 창작 및 발표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표적으로 폐교 재 활용 레지던시 조성 및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조성에 대한 계획이 많은 것은 것과는 달리 창작거점의 운영 내실화, 운영 프로그램의 강화와 관련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지역 창작 거점은 지역 예술 활성화 전반을 다루기 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공간 개념인 레지던시 시설 운영에 치우쳐 있음

- 국내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은 공공(지자체) 차원에서 세워지고 운영된 경우가 많음
  - 민간의 경우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수의 기업 또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함
  - 그러나 창작 거점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지역 예술 정책 추진 체계로의 기능보다는 단순 운영 시설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침
- 기존의 지역 창작 거점은 주로 창작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통해 입주하여 지역 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기반시설임
- 주로 창작 레지던시, 창작 스튜디오, 창작소 등으로 창작 공간의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공간이자, 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입주 예술가를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하며, 입주하는 기간 역시 한정되어있어 예술가들이 입주 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모이게 됨
  - 이렇게 모이는 예술가들은 창작 거점에서 개별 창작활동을 전제로 하되 프로그램의 여부에 따라 입주 예술가들 간 상호 네트워킹을 하기도 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며 지역 내에서 예술가들 간의 창작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시설로 작용해 왔음
- 지역에서 예술가의 창작 거점의 운영을 축소 또는 지속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화하거나 지역사회의 다른 필요 용도로 전환하여 운영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시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중단을 2023년 발표하였으며, 경기 창작센터의 경우 역시 2021년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기존의 레지던시 중심의 공간에서 ‘일부 레지던시 운영 및 문화예술 기반 창업·창직 단체 신규 유치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을 발표함
  -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가창 장작 스튜디오는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 중인 난지창작스튜디오 역시 2025년 1월부터 레지던시 운영을 종료하며 해당 공간은 지역 광역사원회수시설로 전환하게 되었음

- 혹은 세종시의 ‘공실 스튜디오’의 경우 임대 상가의 공실을 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임대 계약을 통한 창작 거점의 운영으로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지역 창작 거점의 위축은 기존의 운영 중심에서 지역 예술 정책과 예술 수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거나 활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예술 정책이 지역민의 향유와 예술 참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예술가를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 및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지역에서의 창작 거점의 운영이 위축 또는 중단됨에 따라 지역에서 예술가들의 활동 계기 마련이 보다 어려워지는 추세임
  - 예술가들의 창작거점으로서의 입주 공간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으로의 예술가 유인을 위한 전략적 대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창작거점이 제공하던 대내외적으로 지역으로의 예술가 유입 및 창작활동 지속 기회 또한 감소함
  - 지역으로의 예술가의 예술 활동 여건은 지자체의 입장과 개별 정책 방향으로 인하여 지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예술가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지역 예술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함

### 3.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역 창작 거점의 순기능

- 지역 창작 거점은 예술가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주요 방식으로 인식됨
  -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지역 창작 거점이 예술가의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커리어 개발의 차원에서라도 지역 레지던시에 입주 및 활동하며 이는 지역으로의 예술가 유입을 이끄는 계기가 되고 있음

작가에게 있어 레지던시는 매우 중요한 커리어 개발의 기점이에요. 그곳의 시설이나, 지원이 더 좋을수록 설령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예술가 경력을 볼 때 입주작가의 경력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레지던시에 입주한다는 것은 공적 심사를 통과하여 예술가의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창작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창작자 B)

- 지역과 예술의 매개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을 예술가가 접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
  - 예술가가 경험 없는 지역에 대한 유입 시 창작 거점의 운영 및 관리자는 지역에 대한 예술가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 유입 및 경험 형성의 매개로 작동함
  - 이는 지역 창작 거점이 지역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연간 예술가를 대상으로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나 이외에도 지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예술가와 지역을 매개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 타지에서 온 예술가가 지역에 적응하고, 지역 내에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예술가 또한 심리적으로 지역에 대한 낯선 감정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며 지역에 관하여 예술가가 흥미로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에 대한 탐구와 흥미가 확대될 수 있음
  - 소통 측면에서도 지역예술 매개자가 있을 경우 지역민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 입장과 소통 방식의 이해를 도와 지역-예술가의 관계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제주에서 1주일 바다 레지던시를 해본적 있는데, 제주도 좋아라는 팀이 있고 제주 생태에 관한 주제로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레지던시는 거의 1달 정도를 예술가가 제주도에 머물며 제주의 자연 보호에 관한 캠페인성 활동을 하도록 하는 곳으로 쓰입니다. '제주도 조아'라는 팀은 이들이 지역과 예술가의 매개가 되어주고 있어요. 지역민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술가가 환경보고 차원을 넘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때문에 예술가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지역 경험을 토대로 예술가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이들의 매개 역할 덕분에 저 또한 지역과 관련한 작품을 창작했다고 봅니다 (창작자 C)

- 예술가의 활동 무대를 지역으로 만듦으로서 지역에 관한 예술가의 예술 활동의 계기 마련 및 지역과 예술의 연계 방안 모색이 시도되고 있음
  - 최근 소멸위기 지역에 예술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예술가들의 정주할 공간과 지역에서의 활동 비용을 지원함
  -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지역에서 머물며 지역민과 만나고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이 예술 창작의 배경이자 주제가 되기도 함



- 서산시의 경우 입주 작가 모집 당시 지역민과의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역의 축제, 지역민의 생활에 예술가가 자주 노출시켜 창작활동에 지역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강원도 고성군은 접경지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접경 마을에 레지던시를 마련하고 지역민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접경 지역의 삶과, 일상에서 나타나는 분단 국가로의 경험에 예술가들이 노출되도록 한 후 이에 관한 창작 활동 시 입주 기간과는 별도로의 창작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역이 예술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례]서산시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

[그림 2-10] 서산시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부



출처: 서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

- 지역 내유허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작가(기수별 6명)를 모집
- 입주작가는 작업실 제공을 비롯하여 전시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및 도록 제작의 지원 혜택이 있음
- 지원사업은 입주 작가가 지역민이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축제(서산시 도시재생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지역민과의 접점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사례]고성군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

[그림 2-11] 아트케이션 고성(고성군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강원도 고성군은 아트케이션 고성을 지향하여 청년 예술가에 국한한 지원을 추진함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원회의 2024년도 소멸위기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 선정에 의하여 추진됨
- 2024년의 경우 명파마을에서 12인의 외지인 예술가를 지원하며 1개월간 민박, 펜션, 호텔 등의 거주공간 제공, 지역주민 네트워킹 기회 마련, 지역 역사 탐방 등을 추진함
- 외부 예술감독 및 비평가 네트워킹을 제공
- 한달살기 후 아이디어를 지역 내에서 실현하도록 창작 지원금을 제공
- 창작된 작품은 지역 예술축제를 통해 향유로 이어지도록 유도

-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창작 거점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되기 보다는 지역 창작 거점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연계 형태의 창작 활동은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제약과 한계로 인식되기도 하여 예술가들이 지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기도 함

작가의 창작에 있어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예술 활동은 그것에 대한 독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을 할 때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의 의미는 어찌보면 특정 조건을 지닌 예술 활동을 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지역들이 이러한 조건을 걸고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부분은 예술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창작자 D)

## 4. 소결 및 시사점

- 예술 분야의 지역 거점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필요
  - 예술 정책 차원에서 지역 거점 마련에 관한 공론이 필요하며, 특히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역 정책 논의활성화와 전략적 접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 분야의 지역 거점을 기존의 소극적인 예술가 작업실 개념으로의 창작 거점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방향과 원칙 제시의 필요
  - 지자체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령 예술가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예술 향유 중심 행사 차원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정책적 방향 보다는 정치적 개입에 의해 정책 추진 및 관련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지역의 예술 여건 한계에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방향과 원칙 제시가 필요함
-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지원의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에서 예술가가 활동하게 될 경우 일회적 활동으로 그치게 되며 지역 예술 활동의 성과가 확장되기 어려움

-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이 다른 지자체의 예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소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지역에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지원체계, 지역 간의 협력에 기반 한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지원체계, 혹은 국제적 활동으로의 기회 마련에 관한 예산, 기반 시설, 전문 인력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정책적으로 지역들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유도하며 예술가 또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충의 방안 모색이 필요
- 지역 예술 활동 기회 마련의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과 행정 추진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예술가의 활동 위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어 또는 외국어가 가능하면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움
  - 지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지역의 문화 예술 정책과 지역 예술가 활동 활성화 사업의 변화를 시도하는 원동력임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제3장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거점  
국외 사례 분석



# 제1절 국가 주도 지역 창작 거점 조성 사례: 프랑스

---

## 1. 프랑스의 지역 예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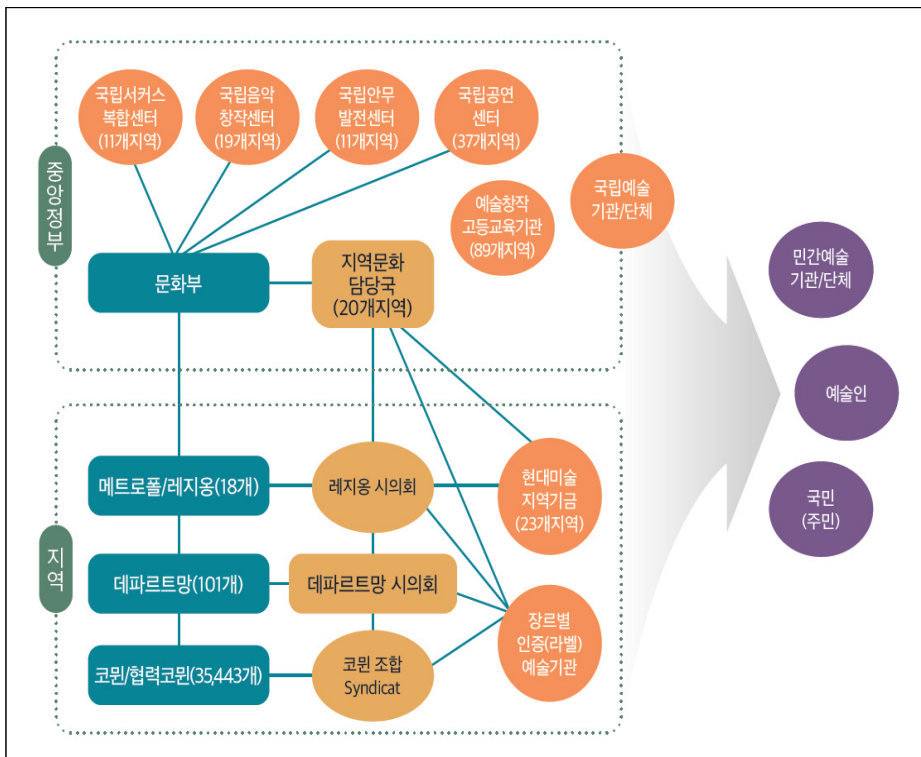
### 가. 프랑스 정부의 예술 정책의 방향

- 프랑스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다양성을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며 특히 대중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전제함(아르코, 박신의, 2004)
  - 이에 프랑스의 문화예술은 재원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모할 수 있는 예술 일상화를 보다 목적으로 함
  - 또한 박신의(2004)는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문화기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예술향수에 대한 목적을 염두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을 만들고 중장기적 운영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목함
  - 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창작 거점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이 프랑스의 문화예술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립과 운영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현 정부는 문화 접근성 예술정책 확대와 예술가 창작 활동에 관하여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 "프랑스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 프랑스의 독자적 문화에 대한 지향은 지양하고, 국가적 정체성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외부 문화의 유입을 통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박지은, 2017)
  - 현 정부는 문화예술정책에서 국가는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민간 영역을 지원하여 공립, 사립 영역의 협력을 통해 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예술가의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예술가의 다영역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선 등 예술가가 적응, 대응하고 예술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책을 추진함
- 또한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융합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 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체계

[그림 3-1] 프랑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 정책 추진 체계



출처: 양혜원 외, 2018



- 프랑스 정부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이는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임
  -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개별 지자체와는 별도로 지역국(Direction Re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 DRAC)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 지역국을 통해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역이 개별 문화 자치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경우 지역국과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는 예술 정책 외에도 예술국을 통해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도 함
  - 지역마다 예술가가 창작 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역의 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문화부는 예술 장르의 진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예술 활동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

#### 다. 프랑스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에서의 창작 거점 정책

- 예술국은 장르별 창작 거점 정책을 통해 각 예술 장르가 프랑스의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측면의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
  - 지역 창작 거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국립 예술기관 및 단체의 지역에 대한 설치 및 관련 기반 시설의 건립, 둘째, 국가가 인증한 지역 창작 거점의 지정 및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립 시설의 형태로 예술가를 위한 창·제작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예술가의 지역 창작 거점을 국가 주도로 마련함
  - 그러나 모든 창작 거점을 국가가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역 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조직을 지역 창작 거점으로 지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함

- 또한 이러한 민간 조직에 대한 창작 거점의 인증 제도 시 민간 조직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의지를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고려함
- 정부가 운영하는 창작 거점은 지역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기관간의 협력 채널을 통해 지역에서 국립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프랑스의 경우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함
  - 이에 정책적으로 예술가의 지역 활동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예술가의 예술 작품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소개되어 지속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기관마다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예술 활동 네트워크가 됨
  - 국립 서커스 복합 센터나 국립 안무발전센터는 11개 지역에 설립되어있으며, 국립음악 창작센터는 19개 지역, 국립 공연센터는 37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음
  - 외에도 예술창작 고등교육기관은 전국 89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외의 국립예술 기관이나 단체 또한 지역에 다수 설립되어 지역의 예술 장르별 창작거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들은 프랑스 문화부와 DRAC과 협력하여 지역의 예술인/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체 기능을 하고 있음
  - 특히 지역에서의 장르별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작품이 지역과 지역을 넘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로 작동함
- 프랑스에서의 창작 거점은 예술가들이 프랑스 전역에 있는 창작 거점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예술 성과가 지역 예술계에 머무르지 않고 파리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예술가가 성장하고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2. 지역 예술 창작 거점 국립 인증 민간 조직 CNAREP

### 가. 제도적 근거

- 프랑스 문화부 예술국의 지역 기반 예술 활동 ‘거리예술 및 공공 예술’을 위한 장르별 예술 지원 정책<sup>5)</sup>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창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법령 No.2017-432에 따라 ‘국립거리예술 및 공공공간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역의 주요 창작 거점을 인증하고 지정하는 제도임
  - 2010년부터 프랑스 문화부가 예술 네트워크에 라벨링(지정)을 통해 문화 조직의 지원 근거를 삼아왔음
  - 2017년 「국립 거리 예술 및 공공 장소 센터」 라벨과 관련된 임무 및 요구 사항의 사양을 설정하는 2017년 5월 5일 명령」을 제정함에 따라 국립 거리예술 및 공공장소 센터(CNAREP) 인증제도를 도입
  - 지역 내 창작기반(공공 및 민간)에 국가가 ‘국립’ 시설로 인증
  - 국립으로의 시설 인증을 통해 CNAREP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포함한 예술적 위상을 확보
  - CNAREP은 거리예술과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인정과 자격 부여에 기여 및 참여함
  - 인증을 기반으로 프랑스 문화부는 CNAREP의 지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
- 법령 제정 및 CNAREP 지정의 목적은 법령 제 1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레지던시 기반 창작 지원과 둘째, 거리예술, 공공공간 예술의 작품 보급을 통한 프랑스 내의 예술적, 문화적 활동의 활성화임

#### 제1조

“국립 거리 예술 및 공공 장소 센터”(CNAREP)는 공공 장소를 위해 설계된 작품을 대중에게 창작, 보급 및 발표하고, 창작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예술 또는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보완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CNAREP 인증은 일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문화적 프로젝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당 기관은 거리 예술과 공공 장소에서의 예술에

5) 「라이브 공연 및 조형 예술 분야의 라벨 및 계약에 관한 2017년 3월 28일자 법령 제 2017-432호」에 의거하여 제 1장 1조에 따라 안무, 현대미술, 무용, 드라마, 현대음악, 거리예술 및 공공장소 예술, 오페라, 서커스, 동시대 음악, 다학제 예술, 인형극 등 총 13개의 예술 부문에 대하여 국가 인증제도를 추진함.

대한 인식과 자각(해당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술, 경험, 지식의 확보)을 위한 국가 상호 보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평등 목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문화권, 영토 평등을 고려하여 다양성, 동시대적 작품을 통한 예술가와 공공에 대한 예술적 지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접근성을 향상하고 문화적인 일상 내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7)</sup>

## 나. CNAREP 지정 현황

### 1) CNAREP의 개념

- 프랑스 전국에 총 13개소(2024년 기준)의 공공·민간 단체가 CNAREP으로 지정하고 있음

〈표 3-1〉 CNAREP 지정 현황

연번	조직명	지역명	연번	조직명	지역명
1	Association Éclat - Le Parapluie (오리악 축제 사무국)	Auvergne-Rhône-Alpes Aurillac	8	L'Atelier 231	Sotteville-lès-Rouen
2	SOAR - Few p'Arts	Auvergne-Rhône-Alpes Boulieu-lès-Annonay	9	Sur le pont	Nouvelle-Aquitaine La Rochelle
3	Les Ateliers Frappaz	Auvergne-Rhône-Alpes Villeurbanne	10	Pronomade(s)	Occitania Encausse-les-Thermes
4	L'Abattoire	Bourgogne-Franche-Comté Chalon-sur-Saône	11	l'Usine	Occitania Tournefeuille
5	Le Fourneau	Brittany Brest	12	Le Citron Jaun	Pays de la Loire Port Saint-Louis-du-Rhône
6	Le Boulon	Hauts-de-France Vieux-Condé	13	Lieux publics	Pays de la Loire Marseille
7	Le Moulin Fondu	Île-de-France Garges-lès-Gonesse			

- 최대 15개 기관까지 선정된 바 있으나, 현재는 13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CNAREP은 프랑스 전역의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같은 주에 복수의 CNAREP이 지정된 경우 또는 특정 주에는 CNAREP이 부재한 경우가 존재함

6)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기관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정책 추진 및 보원을 위한 지정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음

7) 법 조항을 구글 번역기로 프랑스→ 영어 번역 후 연구자가 재 번역하였음

- 선정된 기관은 국가가 인증한 국립 기관으로의 위상을 가지며, 위상과 그에 따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계약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 2) CNAREP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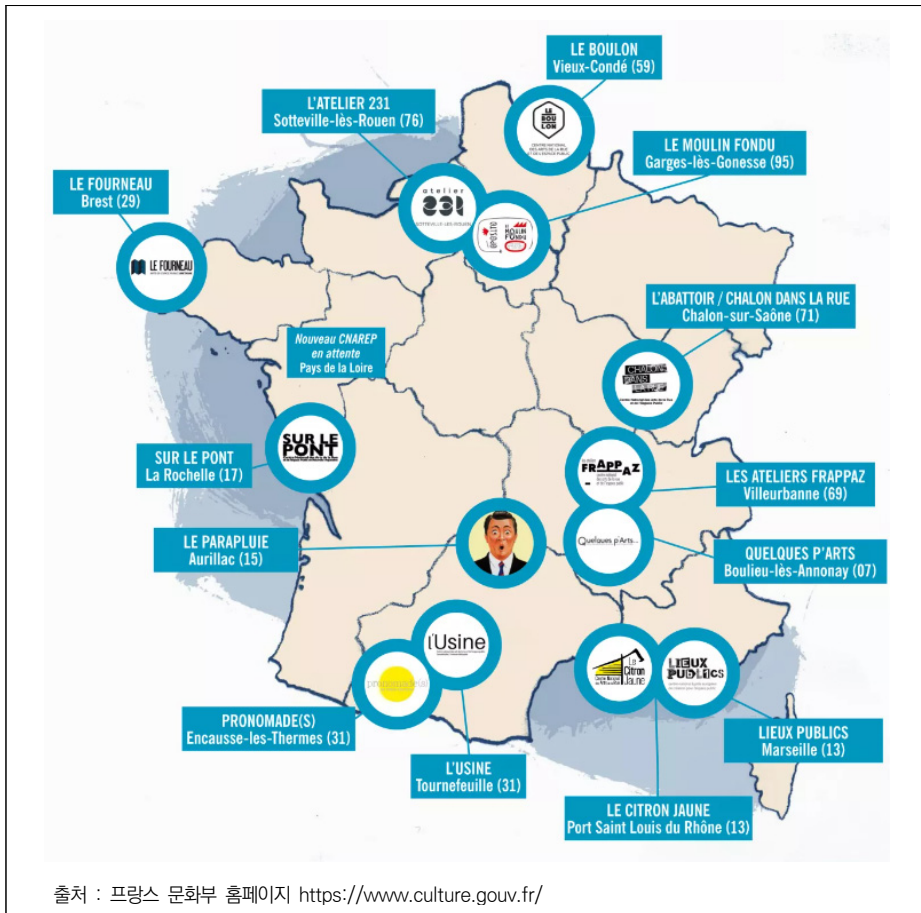
- 개별 기관은 CNAREP의 인증을 희망할 경우 프랑스 문화부에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프랑스 문화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항

- a) 기관 운영의 구조 및 예술적 방향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운영 목표에 관한 서류
- b) 법적 지위, 장비 및 인력의 특성, 예산,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설명 문서
- c) 물리적 지역의 영역, 예술, 문화적 환경과 전문 네트워크 내에서의 조직의 구조적 위치를 설명하는 문서
- d) CNAREP 인증 신청하기 위한 조직의 소재 관할 기관(지자체)의 심의 서류

- 심의에는 신청 기관이 거리예술, 공공 공간의 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으로의 방향성과 실행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영 목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함
- 기관이 지원과는 별개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유하여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함
- 물리적 영역과 예술,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내부의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 상 어떠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성, 예술성, 타 기관과의 협력적 태도와 실제 협력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함
- 신청 및 인증의 여부는 프랑스 문화부 공식 저널을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함
- CNAREP의 인증을 위해서는 소재한 지역과의 관계 및 지역의 지원을 전제로 함
  - CNAREP은 지역에 위치한 민간 기관 및 단체이며, 이들의 예술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예술계를 위해 활동하고 지역 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됨
  - 이를 검증하는 측면에서의 지자체와의 관계와,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기여하는 역할은 CAREP의 지역 거점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됨

[그림 3-2] 13개 CNAREP 지정 및 위치 현황



## 다. CNAREP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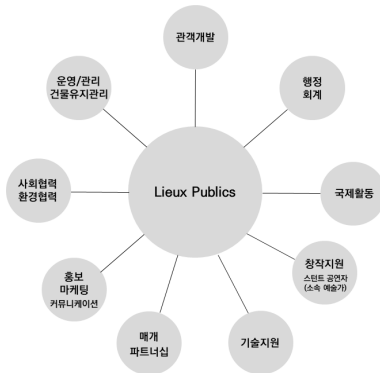
### 1) CNAREP의 운영 개요

- 각 지역별 CNAREP은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 법인 단체인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연합 또는 지역 대표 거리예술 공공 공간에서의 예술 분야 단체 또는 지역 거리예술 축제 연합 등 유관 단체가 문화부에 CNAREP 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과한 후 지정됨
  - 이는 CNAREP이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유관단체의 거리예술, 공공공간에서의 예술과 관련하여 자발성과 적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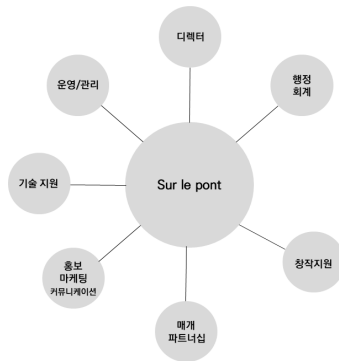
- 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성을 갖춘 민간 주도의 예술 활동 지원 사업임
  - CNAREP을 운영하는 주체는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운영, 프로그램 기획, 운영, 예술가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함
  - 사무국의 규모는 CNAREP의 운영 규모 및 개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작은 규모의 경우 7-12명 정도의 인원이 운영함
  -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마르세유 지역의 Lieux Publics는 45-47명 규모이며, 위탁운영 중인 <LA CITE DES ARTS DE LA RUE>의 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업무, 유럽 및 국제 예술 네트워크 <IN SITU> 운영 등을 포함함

#### Lieux Publics와 Sur le pont 운영 조직 비교

[그림 3-3] Lieux Publics의 조직 체계



[그림 3-4] Sur le pont의 조직 체계



출처 : 연구자 정리

- CNAREP의 운영조직은 공통적으로 1) 운영 회계, 총무부서, 2) 예술 창작 지원, 3) 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원, 4) 매개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이는 각각의 CNAREP이 예술가, 예술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함
- 특히 예술 창작 지원 기능의 경우 담당자의 수나 구체적 소관 업무의 세분화는 다르지만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선행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가들을 위해 전문 기술 지원 인력 역시 확보되어 있음
- 또한 CNAREP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예술가들의 지역 내 예술 활동이 지역민의 소비 및 향유로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확산, 공유하는 업무가 중요함에 따라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인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CNAREP의 주요 기능 중 또다른 하나는 매개 파트너십 기능으로, 조직 세부 인력 담당 업무에서는 1) CNAREP 협회의 업무, 2) 지역내 협력의 업무, 3) 전국적인 단위의 협력업무가 포함되며, Lieux Publics의 경우 국제 활동(줄거는 EU, 넓게는 전세계)으로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업무가 포함됨
- Lieux Publics의 경우 거리예술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분야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및 환경 개선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협력, 환경 협력의 업무 담당 조직이 별도로 있으며, 그 외 지역민으로의 관객개발, Lieux Publics가 지역 정부로부터 운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간 Cite de la Rue의 공간 운영, 관리, 건물 유지의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CNAREP의 운영은 사무국과 문화부, 지역, 시, 입주 기관(예술가, 예술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CNAREP 역시 정부-지역의 협력 매개로 작동함
  - CNAREP의 이사회에는 사무국, 문화부, 시, 지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입주 예술가 및 예술 조직 대표자 등이 참여함
  - 이사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만 정부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관여 또는 개입하지 않으며 기관의 방향성에 관한 사항만 일부 제시함
  - 문화부가 지역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협력의 대상으로 CNAREP이 고려되며 CNAREP은 정부와 지역, 지역 내 관계 기관 및 관련자들을 연결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2) CNAREP 재원 조달 및 자금 운용

- CNAREP은 예술가 지원 및 지역 예술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원비의 일환으로 국가, 지역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
  - 프랑스 문화부의 경우 CNAREP의 지정 및 인증에 따라 €250,000를 지원함
  - 개별 CNAPEP마다 지역(주(state), 광역지역(province), 시(city)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CNAREP은 지원기관과 별도로 계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계약은 다년간 계약 또는 1회성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년간 계약 지원의 경우 운영지원을 의미하며 작품의 설치, 기술팀,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등 CNAREP 운영 및 예술 활동 일부를 중심으로 재정 활용됨
  - Lieux Publics의 경우 주정부와 시가 각각 별도의 CNAREP 운영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900,000, 마르세유 시가 약 €480,000를 지불하며, 유럽 거리예술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네트워크 조직 <IN SITU>의 운영을 위해 유럽위원회가 약 100만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3-2〉 CNAREP 운영 재원에 대한 지역 지원금 규모(출처: 연구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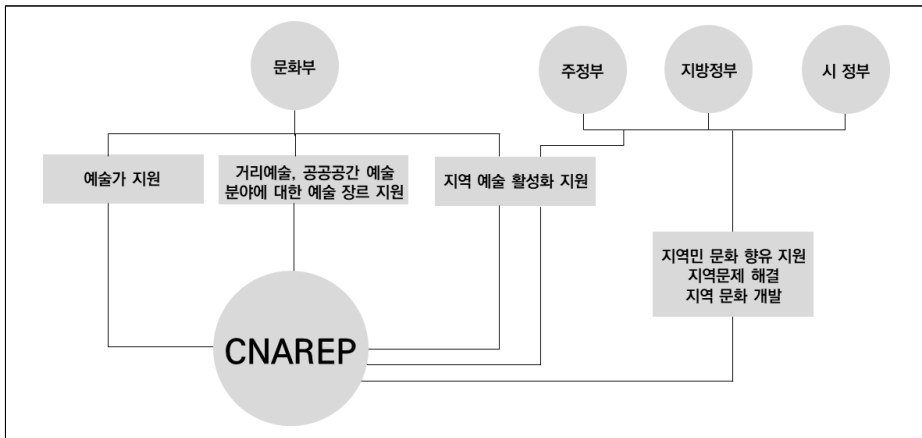
CNAREP	Lieux Publics의 운영 재원에 대한 지역 지원금의 규모	Sur le Pont: 의 운영 재원에 대한 지역 지원금 규모
주정부	€ 900,000	€ 250,000
지역	€ 100,000	€ 200,000
시	€ 480,000	€ 150,000

출처: 연구자가 직접 Alexis Nys 감독 자문 조사

출처: 2019 CNARE Sur le Pont Rapport D'activités

- 일회성(단년) 지원의 경우 지원금 형태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사용됨
- 기반 운영의 경우 지방 정부의 지원과 지역 내 기업 등의 후원 등을 통해 조달 운영 함
- 마련된 예산은 주로 공동제작 및 예술가 레지던시 활동에 지원되며, 기관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구성됨
-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Sur Le Pont의 경우 전체 비중의 47%를 창·제작비 및 예술 활동 지원비, 레지던시 활동 지원비로 사용하며, 16%는 일반운영비, 직원 급여가 37%를 차지함(Sur le Pont, 2019)

[그림 3-5] CNAREP의 운영 지원 정책별 지원 구조



출처: 연구자 정리

### 3) CNAREP 운영 사업

- CNAREP의 운영 사업은 1) CNAREP 예술가 선정 및 지원 2)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3) 창작 지원 공간의 운영, 4) 대외 공동 협력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됨
  - 예술가 창작 지원의 경우 지역에서의 거리예술, 공공 공간 기반 지역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창·제작 지원 및 프로그래밍 지원, 대중 접촉 기회 마련 및 모객 등을 지원
  - 주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공공공간의 섭외 및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서의 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창·제작 지원에 집중함
  - 예술가 레지던시의 경우 별도의 레지던시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 대학 기숙사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레지던시 지원을 진행함
  - 공간 지원의 경우 개별 CNAREP마다 여건과 규모의 차이가 큼
  - CNAREP의 공간은 대중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아니며, 예술 활동이 대중에게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공공장소, 지역의 거리 등에 한하도록 함
  - 이에 CNAREP의 공간 운영 사업은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의 일환임

#### 예시) 라로셀 지역의 Sur le Pont:

- 지역 내 아파트 공간을 통한 총 6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 2개소가 레지던시로 마련됨
- 시의 지원에 따른 역 인근 유휴 공간 작업장을 임대하여 창작 무대 세트 및 연습 공간 운영 등

[그림 3-6] Sur le Pont 공간 현황



연습공간



리허설 공간



로비 및 공용공간

출처 : Sur le Pon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narsurlepont/>

**예시) Lieux Publics**

- 주거용 공간 : 예술가들의 지역에 대한 리서치와 대중 활동을 위한 별도의 주거 공간 마련
- 공동 제작 공간, 연습공간, 창고, 리허설공간, 컨퍼런스 및 회의실, 사운드랩, 야외 리허설 공간 등 마련

[그림 3-7] Lieux Publics 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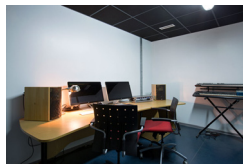
연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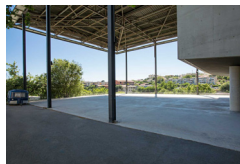
창고



리허설공간



사운드랩



야외 리허설 공간



레지던시 숙소 공간

출처: <https://www.lieuxpublics.com/>

- CNAREP의 운영사업 가운데 예술가 지원 활동의 경우 ‘지역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대중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둠
  - CNAREP은 예술가 지원 업무가 기본 역할이며 세부 역할을 명시하는 바는 없으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이 주요 역할임
  - 지역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문화가 생태적으로 고려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며, 이에 지역 예술 생태계 차원에서의 CNAREP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지역’이 우선될 수 밖에 없음
- CNAREP의 운영 사업을 위한 비용은 정부, 지자체의 프로젝트 단위 지원비를 통해 충당하며, CNAREP은 지원비를 매개하는 지원 보완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 프랑스 정부의 경우 2024년도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로 전국에 문화 올림픽 개최를 유도하며 이를 위한 지원금이 €50,000, 장르별 특정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32,000임
  - 지자체의 경우 각각 지원 사업별 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프로젝트별로 €5,000에서 €50,000까지 지원가능하며 해당 지원금은 예술가의 작품 및 활동의 규모나 지원 단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4) CNAREP 입주, 참여 작가

- CNAREP은 지역의 예술가, 예술기업의 협력체에 기반한 조직에 가까우므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및 활동 조직이 입주 및 협력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CNAREP에 입주 및 협력하는 예술가는 매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함
- CNAREP 입주 및 협력 예술가 및 단체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준함

##### 협력 및 입주 예술 단체 선정 기준

- 해당 단체의 예술적 역량, 거리예술과의 관련성, 공연 및 실연 가능성
- 전국의 CNAREP마다 고유한 특성과 영역, 예술특화 장르를 통한 차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리&공공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해당 CNAREP에 부합되는지를 염두하여 선정  
예시) Citorn Jaune은 주로 생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예술가
- Lieux Publics는 참여 프로젝트 및 교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예술가
- Aix Marseille 지자체 차원의 물을 주제로 한 주요 행사를 조직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주제와 관련한 예술가 선정을 염두하기도 함

- 입주 및 협력 가능한 예술가 및 예술 조직은 지역 내에서 지역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 특정 장르로의 제한은 없음
  - 주로 공연, 퍼포먼스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라이브 공연, 음악, 시각예술, 글쓰기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극단의 형태로 지역의 하이킹을 통해 대중이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유형의 활동도 존재함

예시) Lieux Publics 입주 기업 Jour de fête

- 2014년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스페인 바스크(Basque) 지방에서 설립된 예술프로젝트 팀 기업
- 투어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지역과, 예술가를 만나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노래, 춤, 합창, 연극 등의 창작을 유도하는 복합 예술 프로젝트 그룹

출처 : <https://www.lieuxpublics.com/>

#### 5) CNAREP의 지역형 예술 활동

- 입주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
  - 지역 공공공간에 특화되어 창·제작 되는 거리예술 창작물을 공연 및 이벤트 중심의 예술 활동 추진을 통한 지역 내 연간 수시 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입주 예술가들의 공연 및 성과 발표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

[그림 3-8] CNAREP Lieux Publics의 프로그램



#### CNAREP의 지역형 예술 활동 주요 지원 사항

- 기존 프로젝트 배급 지원
- 현지 예술 팀과의 프로젝트 적응 및 재창조 지원
- 국제적 프로젝트 창작 지원
- 연구 프로젝트 지원
- 국제적 작업의 용이성 제공

#### ■ 지역 예술 축제를 통한 지역 예술 활동의 홍보 및 유통

- 각각의 CNAREP이 소재한 지역 축제는 지역 거리 예술 및 공공공간 활용 예술 활동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자 활동 기회 그 자체임
- 이에 CNAREP 입주 예술가들은 축제기간동안 예술 활동을 추진함
- 공연기획자, 주요 국내외 공연 및 예술가 섭외 전문가 등은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거리예술 공공공간 활용 예술가를 섭외, 지원하거나 공연을 구매 유치함
- 특히 오리악 지역 CNAREP은 지역 축제 사무국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지역 거리예술 축제이자 거리예술, 공공공간 기반 예술 활동의 교류와 유통의 장이라 할 수 있음

#### 오리악 거리예술 축제Aurillac Festival International de theatre de rue

- 매년 8월 개최되는 프랑스의 국제적인 거리극 축제
- 국내외 400여팀의 예술가, 단체가 모여 축제에 참가
- 인구 3만명의 소도시에서 축제기간에 20만명이 밀집하는 축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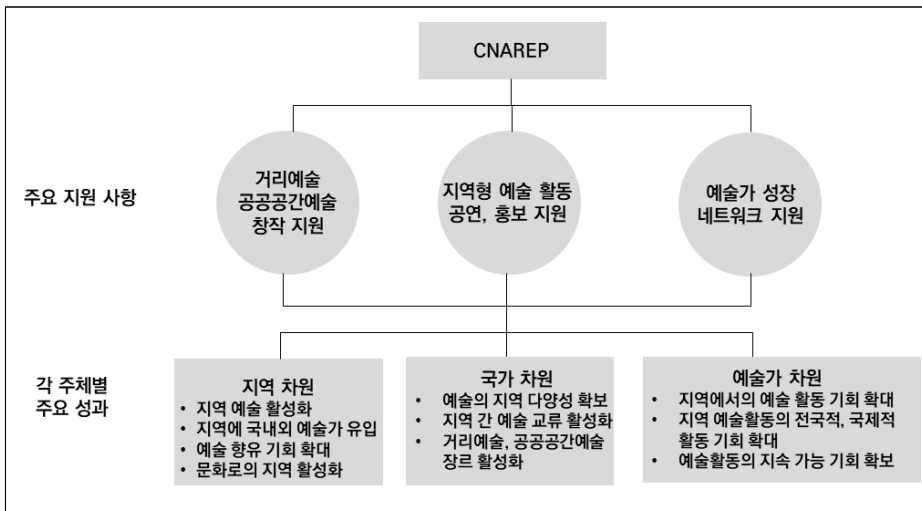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lieuxpublics.com/>

- 예술가를 통한 지역의 예술적, 문화적 재조명
  - 지역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예술가들이 재발견하고 이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함
  - 예술가들은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화하거나, 예술가의 작품으로 제작하기도 함
  - Lieux Publics의 입주작가인 지네브 벤제크리와 데이비드 피카르(Zineb Benzekri and David Picard)가 콜렉티브 그룹으로 활동하는 Random은 지역 거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리 공연 원고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바탕으로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공연 제작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 Le Citron Jaune CNAREP의 참여 작가인 Floriane Facchini의 경우 지역의 요리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축제 연회와 구전문화를 중심으로 사진과 레시피를 창작물로 전시, 설치하는 작품 CUCINE(S)를 진행함
-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 CNAREP은 지역사회 협회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민의 예술경험 확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이는 거리예술,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활동이 대중이라는 관객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며 주민을 향하는 프로그램 또한 CNAREP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Lieux Publics는 'Cité aux Enfants'이라는 협회와 문화소외지역의 1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인식을 바꾸고 예술 경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또한 Lieux Publics가 위치한 장소가 지역에서 가난하고 버려진 지역임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환경의 개선, 지역민들의 낙후지역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의 개선에 관한 예술 기반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모하는 노력을 추진 중임
- 지역 예술계의 대외적 국제적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CNAREP은 프랑스 정부가 인증하는 국가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

서 예술가로의 전문성과 성과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임

- 이러한 위상을 기반으로 CNAREP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그치지 않고 지역형 예술이 좁게는 전국적, 넓게는 전세계적으로 확장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함
- 이에 CNAREP을 거쳐 간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뛰어난 창작활동 및 공연, 공표활동을 하며, 대외적 인정을 받는 기반으로 작동함

[그림 3-9] CNAREP 운영에 따른 주요 성과



출처: 연구자 정리

## 라. CNAREP 지원 및 협력 체계

1) CNAREP 간의 협력체 L'Association des centres nationaux des arts de la rue et de l'espace public

- CNAREP은 문화부에 인증 받은 국립 보완 기관이며, 공공장소에서 예술창작을 위한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CNAREP 창립기관 간의 협력체를 통해 발의함
- 마르세유 공공 예술 센터 Art De La Rue et L'espace Public을 중심으로 전국 CNAREP 협회 <L'Association des centres nationaux des arts de la rue et de l'espace public>이 구성되어 있음
  - 협회의 주요 기능은 각 조직간의 교류 협력, 정부-공공예술센터 간의 소통, 대

내외 협력과 소통을 유도하며 민간 중심의 CNAREP의 공공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음

〈L'Association des centres nationaux des arts de la rue et de l'espace public〉 주요 활동

- a) 공공 장소에서의 예술 창작을 위한 정책의 실행과 관련한 의견 제시
  - b) 거리 예술 부문과 공공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 협력 공간의 마련
  - c) 공공 장소에서의 글쓰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국내 및 국제 토론에 참여하고 제안
  - d) 공공 장소에서의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전향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 예시)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거리예술, 공공예술관련 공개 서한 발송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무료 공공예술, 거리예술을 위한 공간 탐색

- 또한 예술계 내에서 CNAREP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예술가 지원에 대한 별도의 협력 사업을 마련하기도 함
- Hors Cadre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공공공간에서의 창작을 위한 창·제작 기금임
- 협회는 예술가 공모를 통해 1차 프로젝트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창·제작 예술가를 연단위로 선정함
- 심사 단계는 아이디어 글쓰기 단계, 사업 구상 계획 단계, 실제 실현 단계로 구분됨

Hors Cadre의 사업 단계

- 1 단계:
  - 이메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최대 3페이지)
  - 최대 6개 프로젝트 선정 및 프로젝트구체화 및 개발을 위한 기획 글쓰기 보조금 지원
- 2 단계:
  - 창작 목적, 계획된 접근 방식, 구상된 형태 및 창작을 위한 계획 파일 제출 및 심사
  - 최종 1~3개 프로젝트가 "Hors Cadre"를 통한 창·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

① CNAREP과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체

- CNAREP은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 내에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지역 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예술과 공공공간에서의 예술 지원 체계임
- 이에 각 CNAREP은 소재한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함
- 지역 기관 간의 협력은 CNAREP이 소재한 지역이 구심점이 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임

- 주정부, 또는 시 단위에서 각각 지역 내 소재한 기관들 간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CNAREP은 이에 참여하거나 주도적 협력 역할을 수행함
- 주로 지역 축제를 바탕으로 협력 활동 또는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하며, CNAREP은 지역 축제 내에서 축제 볼거리로의 거리예술, 공공공간 예술을 선보임

## 2) CNAREP의 국제 예술 네트워크

- CNAREP은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동을 국제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거리예술, 공공공간 기반 예술은 지역에 특화된 예술장르임에 따라 예술가들의 지역활동으로 국한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음
  - CNAREP은 이러한 문제를 1) CNAREP 내에 국제 네트워크 거점 마련, 2) 국제적인 위상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예술가들의 국제적 경험 기회 마련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CNAREP은 마르세유의 Lieux Publics에 거리예술관련 국제 조직 및 기반을 마련하고 거리예술과 공공공간 예술 부문의 국제적 활동 및 교류 입지를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 최초의 CNAREP인 Lieux Publics에는 두가지 국제 네트워크가 존재함
- 거리예술 공공공간 예술의 유럽 플랫폼인 IN Situ는 2003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지역형 예술 활동(공연장 밖 지역 공공공간에서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함
  - IN SITU는 현재는 프랑스 최초의 CNAREP인 Lieux Publics가 주관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하고, 협력과 교류 기회를 마련해옴
  - IN SITU의 자금은 유럽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며 현장 예술, 협력 플랫폼 구축, 법률 개정, 협력 공간 마련 등의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고 있음
  - IN SITU는 총 5명의 사무국 운영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며, 예술가들의 활동, 지원 체계와의 조율, 대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행정 사무 업무 등을 담당함
- CNAREP Lieux Publics는 2017년 거리예술 공공공간 장르의 유럽센터로 지명되

어 국제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 함

- 주요 업무는 국제 예술 프로젝트의 창작 지원 및 다국가 간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것과, 예술가와 예술조직의 국제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예술 활동을 위한 기술 인력 및 재정적 지원, 유럽 차원의 지역 연결 사업 활동 등을 추진함
- 유사한 조직으로의 IN SITU가 같은 CNAREP 내에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상호 협력 및 보완 원칙에 기초하여 업무를 추진함

- 그 외에 국제적인 국공립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한 CNAREP의 지역 예술 활동을 국제화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함
  - CNAREP의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역에 소재한 국제적 위상을 지닌 국공립기관과 CNAREP 활동 예술가들을 국제적인 예술가들로 성장시키는 채널들이 마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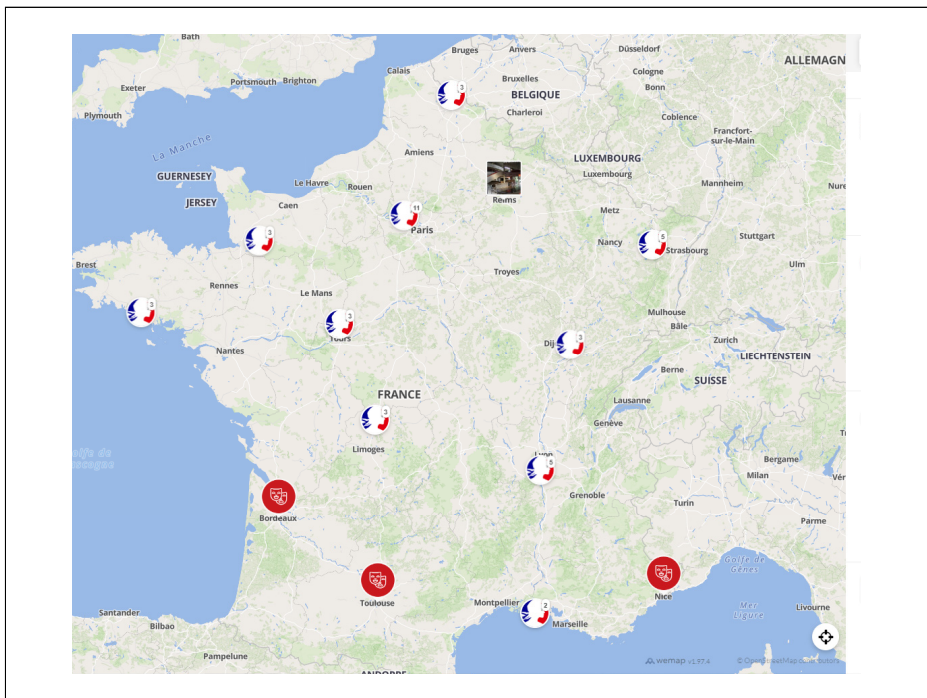
### 3. 장르별 지역 국립 창작 거점 기관 조성 NCDs : 브르타뉴 국립극장

#### 가.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창작 거점

- 프랑스의 공연 예술 기관은 국립극장, 국립 드라마센터(The National Drama Centres, NDCs), 국립 공연장, 국립 서커스, 국립 거리예술 및 공공 공간에서의 예술 센터, 국립인형 극장 등으로 구분됨
  - 국립극장은 총 6개로 6개 가운데 5개관이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며, 1개소만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함
- NCDs는 연극 분야에서 종사하는 1명 이상의 예술가가 주도하는 창·제작 전문 국립 기관임
  - NCDs는 프랑스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으로 공연 극예술 분야의 지역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기관임
  - 전국 45개<sup>8)</sup> 지역에서 국립 공연 창·제작 센터 기능을 수행함

- 특히 극예술의 경우 다양한 예술 분야의 종합 예술이자, 여러 전문 인력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프랑스의 경우 NCDs를 통해 관련 전문 예술인을 모이게 하고, 이들이 연구, 집필, 창작, 보급,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 거점임
- 각 지역의 NCDs는 창·제작된 예술 작품을 지역민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예술 향유 거점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물을 공표하는 무대의 기회를 제공함

[그림 3-10] 프랑스 국립드라마센터(NCDs)의 지역 분포 현황



출처: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

## 나. 브르타뉴 국립극장 개요

- 브르타뉴 국립 극장 ( TNB , National Theater of Brittany)은 1990년에 프랑스

8) 2024년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기준

렌 지역에 설립된 국립 드라마 센터(NCDs) 가운데 하나임

- 공연 예술 분야의 창·제작을 위한 NCDs의 특성상 예술가의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공동 창·제작 거점 주요 업무
  - 예술가 상주 프로그램 및 예술가 교육
  - 예술 창작물 공연 시연
  - 예술 창작물 공연
  -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국제 개발 업무
  -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참여와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다. 운영 체계

- 지원 체계
  - 극장의 운영은 렌 시(Rennes)와 프랑스 문화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 및 운영함
- 문화부와의 운영 관계
  - 예술국이 소관하고 있으며, 문화부 담당자는 TNB의 운영위원회 위원임
  - TNB의 총 예술감독, 행정 및 재정 이사는 문화부와의 소통 및 업무 파트너로 지정되어있으며 해당 직위는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 문화부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며 재정상황, 프로젝트의 타당성, 수행 여부 등을 검토함
- 지역 당국과의 운영 관계 및 재정 구조
  - 지역의 경우 총 3개의 지역 단위에서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 Rennes시, Ile-et-Vilaine 부서 및 Brittany 지역으로 각각 행정구역의 규모가 다름<sup>9)</sup>
  - Rennes시는 TNB의 설립주체이며 건물 소유주인 동시에 문화부와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실질적 관리 주체로 볼 수 있음

9) 우리의 지자체 단위인 도, 시, 군의 유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Ille-et-Vilaine나 Brittany 지역 의 경우 보다 넓은 지역의 단위로 지역민의 문화적 접근성과 문화의 민주화, 지역민과의 관계에 관한 개입을 중점 추진함
- 각 지역은 재정 지원을 소관하며, 문화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의 경우 Rennes 시가 문화부와 다년계약을 맺어 확보 및 운영함
- Ille-et-Vilaine나 Brittany 지역 단위에서는 프로젝트에 따라 매년 보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사업의 변동성이 있음

#### ■ 운영 인력

- 예술가의 지원을 위해 TNB 내에는 직원으로 홍보, 제작부서, 기술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 홍보 업무의 경우 지역으로의 예술 향유 기회 마련 및 창·제작 예술작품의 대외 유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 제작 부서의 경우 문화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프로젝트의 탐색과 추진을 수행함
- 기술팀의 경우 창·제작 뿐만 아니라 창·제작 된 예술작품이 대중에게 공연의 형태로 선보일 수 있도록 무대 기술 관련 업무를 소관함
- 극장 인력은 약 350명에 달하며, 공연마다 필요에 의해 임시 계약을 통한 배우 등을 섭외하여 인력을 운용함

### 라. 운영 사업

#### ■ 극예술의 공동 창·제작

- 극장의 운영은 렌 시(Rennes)와 프랑스 문화부가 공동으로 운영함
- TNB에는 총괄 프로듀서가 있어 예술 감독 다양한 경력과 단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28명으로 구성되어 다 학제적 예술 활동을 추진함
- 외에 입주 작가를 선정하여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가들의 훈련과 교육이 포함됨
- 현재는 해외에 선보일 공연 예술 창·제작 사업(TNB 글로벌 프로젝트)이 주요 사업으로 입주 예술가들과의 공동 창작 활동을 중점 추진함

## ■ 지역과의 연계 협력 사업

- 예술가가 창·제작 한 예술 작품을 지역에 소재한 극장에 선보임으로서 지역 예술 향유권 신장을 목표로 함
- 지역의 공연 예술 기반 시설이나 소극장 등과 협력하여 파트너십의 형태로 주요 공연을 제공함
- 지역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력 기반 장소 및 네트워크 행사 등 계기를 마련함
- 현지 예술가를 발굴하고 공연에 활동 할 기회를 제공함
- 지역 예술 활동 보급의 과정에서 지역 예술가의 활동 기회 확대

## ■ 국제 협력 사업

- TNB에는 국가자원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 형태의 국외 기관 또는 조직과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예술 활동 기회를 작가에게 제공함
- 공연을 창·제작, 유통하며 형성한 국제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어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국제 파트너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사업으로의 유럽 연극 컨벤션 네트워크

- 유럽 연합의 자금지원을 받는 유럽 연극 네트워크는 유럽차원의 국제 공연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럽 공공극장 네트워크이며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31개 국가 63개 회원관으로 구성된 조직임
- 연극 공연 분야에서 동시대 문화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협력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EU 문화 예술 분야 정책에 대한 장르 차원의 의견을 수합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각 회원관 간 창·제작 연극 작품을 공유 및 소개하고 상호 교류 협력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 3-11] 유럽 연극 컨벤션 네트워크



유럽연극컨벤션 네트워크 컨퍼런스(2024)



유럽 극장 토크 프로그램(2024)

출처 : 유럽 연극 컨벤션 네트워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uropean.Theatre.Convention/>

- 주요 사업은 첫째, 예술작품의 창·제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추진, 둘째, 창·제작된 예술작품의 국제적 소개 및 유통, 셋째, 외국예술가를 초청하고 이들과 국내 예술가들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국제 네트워크에 회원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 연극 컨벤션 네트워크 회원관임

■ 지역 축제 사업

- TNB는 자체 지역 축제 TNB 페스티벌을 기획 운영함
- 특정 장르에 특화되지 않은 연극, 춤, 영화, 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축제로 현대 예술의 다양성과 표현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추진
- 공연 예술가들에게 대중을 만나는 적극적인 형태의 접점을 제공하며, 토론, 컨퍼런스, 워크숍 등이 개최되어 관객과의 직접적 소통을 유도함
- 2021년 프랑스 연구소(구 프랑스 문화원)와 3년의 계약을 통해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고 협력 축제 추진을 시도하고 있음

## 제2절 지역 예술 주체간 협력체로의 창작 거점 : 영국

---

### 1. 영국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 가. 영국의 지역 예술 정책

- 영국은 팔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며,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를 토대로 함
  - 영국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정책과 예산의 배분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마련된 예술 위원회(위원회)가 예술과 관련한 자금을 배분하도록 함
- 문화예술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에 힘입은 정책의 변화가 야기되고 국가 개입이 확대되는 추세임
  -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도서관 등에 대한 정책이 예술, 방송, 체육, 건축, 창조 산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광으로의 정책 범위가 확장되고, 비정부 (비영리) 공공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을 통한 문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중앙 정부의 예술 지원 체계인 문화예술 위원회(위원회)는 1개의 전국 사무소와 9개의 지역사무소로 재조직하고, 9명의 지역 위원장과 16명의 이사로 구성된 전국 위원회, 15-120명의 지역 위원을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음
  - 외에 8개의 지역문화협회가 정책을 지원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효율적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국가 개입의 확대로 문화예술 관련 정부 보조금 및 기금 예산 또한 증액되었으며, 예산의 증액은 국가 지원 수혜 기관을 확대하여 예술 분야에 국가개입의 증대로 이어짐



- 2010년대 이후 캐머런 정부는 이전정부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비판하며 정부의 개입 정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수 부처에서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증가를 지적하며 예술의 본질적 가치제고를 우선시할 것을 강조함(김새미, 2017)
  - 영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영국의 전통적 산업의 쇠퇴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이 과정에서 기관간의 통폐합 및 경제적 지원이 축소되었으며 문화예술의 정부의 존도를 낮추기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예산 삭감은 정부의 예산 50%의 감축, 예술 위원회 지원금의 30% 감축, 예술 위원회 자체 행정예산의 50% 감축, 산하 단체 예술기관의 행정 비용 5% 삭감 등을 추진함
  - 예술 위원회가 지원하는 대상 지원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 기부, 펀드, 기증 등 기금조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시도함
  - 그러나 오히려 국가의 예산 감축으로 위축된 기관들은 국가의 지원 수혜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이어지게 되며 예술적 공공성, 독자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역으로 보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특히 경제가 쇠락한 구 산업 지역들의 문화 예술 환경의 여건은 보다 열악해졌음
- 지역 분권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그동안 지원되어 온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자금을 축소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의 위축 요인이 됨
  - 영국은 우리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개발청과 지역성장기금을 통한 지역 자치를 유도하였는데, 중앙 집권적이었던 정책의 지역분권화와 지방화를 추진함
  - 그러나 지역의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가장 먼저 축소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또한 지역 정부 간의 예술 분야 예산의 편차가 큰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예술 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및 활성화 되는 추세임

- 영국은 지역 분권화 정책과 정부 지원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지역 예술 활성화는 지역의 프로젝트를 개발 할 경우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역할을 지역과 구분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특히 2017년 이후 예술 위원회의 자금이 16% 감소하고 이로 인한 예술 정책이 위축됨에 따라 지방 정부가 지역 예술 활동의 주요 자금 지원 주체로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지역으로의 상대적 기반 확충과 개선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됨

## 나. 영국 지역 예술 활성화와 지역 창작 거점 정책

- 영국의 경우 창조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연계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 정부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창작물을 지원하며, 지역 정부는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함(양혜원 외, 2018)
  -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최대한 지양하는 상황이나,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산업 진흥 정책 및 중앙 정부의 국가 대표 예술 창작 지원에 맞물려 지역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황임
- 영국의 창작거점은 그러므로 민간의 문화 예술 조직과 기업의 주도로 나타나며 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정책적 지원 대상이자 창작 거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 예술 위원회는 창작 거점(creative hub)을 ‘진취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물리적인 또는 가상의 장소’로 정의하며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함’을 강조함(British Council, 2021)
  - 따라서 영국에서의 창작 거점의 개념은 특정 물리적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창작자들과 창작 관계 주체들이 모이고, 협력하며, 연결하고, 상호 보유한 가치들을 협력에 의해 교환 하는 것을 의미함
  - 중앙 정부가 지역에 개별 창작 거점을 직접 조성하기보다는 전국의 소도시와 마을에서 나타나는 중소 예술 및 사회 혁신 기업, 창의성과 관련한 조직 자체로 보며 이들의 공간 조성 여부가 아닌 사람과 조직 자체로 인식하고 정의함(British Council, 2021)

- 영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창작 거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 창의적 커뮤니티를 소집하고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면 지역입장에서의 지역 예술 활성화는 예술가의 예술창작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는 공간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영국의 창작거점은 노후하고 쇠락한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예술로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목표하며, 지역 사회에 밀착하여 지역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산업 변화와 이를 통한 도시 활력을 함께 목표로 함
- 영국에서 제시하는 창작 거점이 물리적 거점이 아닌 지역 내 공공-민간의 여러 주체가 협력 관계를 통해 임의의 협력체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영국 게이츠헤드 지역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려고 하였음

## 2. 영국의 지역 예술 창작 거점 : 지역 예술 협력 파트너십

### 가. 협력적 파트너십의 시도 : 북잉글랜드 게이츠헤드 도시 재생 사업

- 북잉글랜드 지역의 산업적 쇠락에 따른 문화적 재생 사업의 추진함
  -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잉글랜드는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문화 예술로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창작거점 형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구상함
  - 북부 경제 및 사회 회복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서부의 리버풀부터 북동부의 뉴캐슬과 게이츠헤드에 이르기까지 도시 경관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
- 게이츠헤드시는 지역 주도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협력에 기반한 예술 창작 거점으로서의 협력적 체계 토대를 마련함
  - 1980년대부터 게이츠헤드 시위원회(Gateshead Council)는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옴

- 1986년 게이츠헤드시 위원회는 자체적인 퍼블릭 아트 프로그램(Public Art Programme)과 게이츠헤드시 위원회 중심의 자문단인 아트 인 퍼블릭 플레이시스(Art in Public Places)를 조직하여 예술을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업, 관광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유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함(Maeve Blackman, 2014)
- 사업 추진 당시 영국 북동부 지역에는 미술관, 음악당 등 지역 대표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부재하였으며,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문화예술 수요와 정책적 관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함
- 내셔널 가든 페스티벌(National Garden Festival)의 성공은 문화예술로 도시의 산업을 변화하겠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공공미술에 대한 투자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Maeve Blackman, 2014)
- 내셔널 가든 페스티벌을 통한 게이츠헤드 시의회의 문화예술과의 역량과 문화 예술로 도시를 전환시키고자 했던 노력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로의 성격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공미술 작품을 건설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짐
- 지역 공공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의 예술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나. 게이츠헤드 지역 예술 프로젝트 추진체로의 공공-민간 협력체 형성

- 지역 공공 장소 미술 작품 설치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합의의 협력체의 필요성 증대
  - 쇠락한 철광 도시인 게이츠헤드시는 지자체 내 공공 인력만의 상황으로는 대규모 예술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예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그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활용함
  - 그 구성은 게이츠헤드시, 지역 위원회, 아트인 퍼블릭 플레이시스(Art in Public Places) 자문단이며 이외에 추진 과정에서 작품 제작 및 설치 전문 기

업, 유관 협력 단체, 기술자 및 토목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등을 통한 유연한 협력 파트너가 참가함

- 지역 의회와 자문단은 작품 설치 장소의 의미를 고려하여 A1/A67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 대규모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추진됨

■ 지방정부와 민간 협력 파트너가 분업을 통해 상호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창출을 할 기회를 마련함

- 지자체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 제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 내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 추진 주체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 반면 민간 예술 기업이나 단체는 지역 내에서 지역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자본력에 의해 그 규모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으로 수익 창출이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직접 추진하기 어려움
- 각각의 주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예술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이니셔티브는 창작 거점으로서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음

#### 다. 게이트헤드 지역 예술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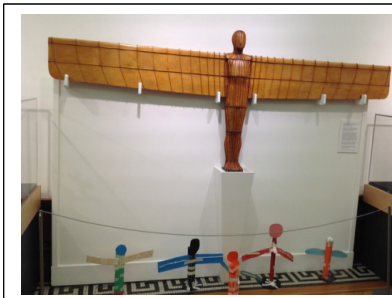
■ 전략적 협력을 통한 지역 공공 장소 미술 작품 설치 프로젝트의 단계적으로 추진함

- 장소의 선정 : 게이트헤드 이니셔티브는 작품 설치장소의 공간적 의미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를 물색 및 고려함. 최종 선정된 장소는 로우 에이튼(Low Eighton)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과거 탄광 갱구의 공중목욕탕이 있던 자리이자 탄광이 문을 닫은 후 폐허로 방치되다 작품 설치 시기에 새롭게 인터 체인지가 정비되며 공원이 조성되는 장소였음
- 작가의 선정 : 작품 설치 장소가 결정된 후 문화예술 담당 직원이었었던 마이크 화이트(Mike White)와 안나 페퍼럴(Anna Pepperall)은 대규모 공공미술을 제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현대미술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젊은 영국 작가인 안토니 고펜리(Anthony Gormley)가 선정됨
- 작품의 설계 : 작가는 지역 문화예술 담당 직원들과 작품 설치 장소에 대한 공

간 연구를 기반으로 1995년 작품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교류하여 최종 안을 완성함

- 작품 재원 조성 : 이 과정에서 지역 의회는 작품 설치를 위한 예산 재원 조성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584,000파운드의 예산을 대외적으로 확보함. 영국 아트 카운실(Art Council)의 복권 기금(Lottery Fund)를 통해서 확보했고, 150,000파운드는 유럽 지역 발전 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45,000파운드는 노던 아츠(Northern Arts) 예산과 민간 스폰서십을 통해서 확보함. 지자체 예산은 전체 80만 파운드 가운데 21만 파운드로 약 27%만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됨
- 작품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유도를 다음과 같이 추진함

[그림 3-12] 북쪽의 천사 모형과 어린이들의 작품



출처: 게이트헤드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atesheadfc/>

[그림 3-13] 게이트헤드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북쪽의 천사>



출처: 안토니 곰리 홈페이지,

<https://www.antonygormley.com/> 부분 확대

#### 게이트헤드시의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지역민 관심 유도 방안

- 1) 작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의 공론화 : 계획안 속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조각상이 텔레비전 시그널이나 라디오 전파를 방해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부터, 근처 그린벨트 지역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 비행기 네비게이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과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추측 등 엄청난 반대와 걱정 그리고 우려가 난무했음. (Maeve Blackman, 2014) <북쪽의 천사>의 형태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은 1935년 나치가 커미션 한 이카루스 상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sup>10)</sup> 대규모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나 작품 형태 결정에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의회의 결정으로 진행했다는 점, 이전에는 없었던 미술작품의 설치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2)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 유도
- 3) 작가의 지역 학교 대상 작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안토니 곰리는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작품에 대한 수업과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고, 추후 교육에도 연계될 수 있는 교사 대상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30여개 학교에서 1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워크숍에서 지역 학생들이 작품의 취지와 지역 내에서의 공공 예술 작품의 의미를 전달함

4) 안토니 곰리와 지역작가 협력 워크숍 : 안토니 곰리는 지역 예술과 협력 워크숍을 진행하여 작품의 제작방식과 건설기술 등을 공유하고, 교류함. 참여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연계 문화 교육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자로 활약함

- 작품의 설치 : 작품의 설치는 1998년 2월 15일 새벽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m 높이의 조각상은 날개 길이만 54m에 달하여 설치 과정 자체가 불거리가 됨. 이에 지역민 2000여명이 작품 설치를 관람하였으며, 방송국에서는 설치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여 국내외에 작품 설치와 지역을 소개함
- 게이트헤드시와 민간의 지속 유지와 추가적인 도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추진
  - 〈북쪽의 천사〉가 성공적으로 설치되고, 대외적으로 큰 홍보를 통해 도시의 평판을 올리자, 영국 예술 위원회에서는 영국 복권기금을 통한 프로젝트의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게이트헤드 시에 대한 투자도 지속됨
  - 특히 예술 작품의 설치를 통해 지역 문화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에서 예술 창작 공간 및 활동 공간의 마련을 통한 예술과 시민의 점점 확대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시민 문화육성을 추진함
  - 후속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이후 밀레니엄 브릿지, 발틱 현대 미술관, 세이지 음악당 등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 및 추진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인 발틱 현대미술관은 강변의 제분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한 미술관으로, 공장이 1982년 폐업 후 철거 문제로 방치되어 있다가 〈북쪽의 천사〉설치 성공 이후 북잉글랜드 지역의 현대미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설립은 영국 예술 위원회, 영국 복권기금, 게이트헤드시, 노던 록 제단, 유럽 지역 발전 펀드 및 노스이스트 등 공공 및 민간 기관 지원이 기반이 되었음
  - 세이지 게이트헤드 음악당은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설계로 2004년 설립하였으며 연중 개방을 통해 중앙 홀은 주민 회합의 공간, 공연공간으로 마련됨. 공연 분야(클래식, 포크, 락, 팝, 댄스, 힙합 등)의 여러 장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으며,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함

10) "Nazi..But Nice?", The Gateshead Post, 1995.02.02.

[그림 3-14] 발틱 현대미술관



출처: 발틱현대미술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alticgateshead/>

[그림 3-15] 세이지 게이트헤드 음악당



출처: 게이트헤드 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NewcastleGateshead/>

## 라. 중앙 정부의 지역 예술 활동 협력 지원 체계화

- 영국 정부는 지역 협력체(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이자 지원 대상으로 활용함
  - 영국 정부는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게이트헤드지역의 공공 예술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됨
  - 이에 지역의 여러 공공-민간,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주체가 협력적 관계를 맺고 협력 관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민간, 민간-민간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 파트너십 단체가 직접 자금 지원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영국 예술 위원회원회를 통한 공적 자금 지원 기금의 대상인 NPO로 선정되는 기준 가운데 지역 협력적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음

### 예술 위원회의 공적 자금지원 대상 NPO(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

- 2022년 영국 정부는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술 위원회 기금 재분배 계획을 발표함
- NPO는 영국 예술 위원회원회의 공적 자금 지원 대상을 지칭하며, 지정 및 선정될 경우 3년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공립 기관은 그동안 공적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왔으나, 기금 재분배 계획 발표 이후 기존의 자금 지원을 받던 기관들 또한 국가에 문화기관의 운영 계획과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혜 여부가 결정되도록 변경됨
- 특히 영국 런던이 아닌 지역 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런던 소재 지원 조직의 이전 및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을 유도함



- 예술 위원회의 또 다른 공적 기금으로의 문화개발기금의 경우 지원 대상은 지역 공공조직, 지역 기업간의 파트너십, 혹은 지역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임
- 외에 크리에이티브 로컬 그로스 펀드는 지역 기업의 파트너십, 예술기관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문화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장소 기반 프로그램임
- 이처럼 영국 정부는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협력에 기반한 지역 예술 문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마.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

- 영국 정부는 게이츠헤드와 인근 뉴캐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준정부기관으로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를 설립함<sup>11)</sup>
  - 현재는 뉴캐슬 시의회, 게이츠헤드 시의회, 노스오프 타인 지역의 통합 당국, 그리고 지역 내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력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대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추진 기관임
  - 지역을 무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지역 발전과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기존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공공-민간 협력 사례는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적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보다 지역 발전 사업의 추진체로 변화함
  -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장소의 개발 사업에서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지역민에게 사업의 혜택을 제시하여 실질적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
  - 지역을 알리기 위한 부동산 및 사업 투자 지원 및 협력, 지역의 관광 및 국제 컨퍼런스 추진,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 향상을 촉진하는 업무 서비스를 제공 부서로 구분되며 개별 사업 및 부서는 뉴캐슬 게이츠헤드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됨

11) 뉴캐슬과 게이츠헤드 지역은 2002년 공동 문화전략 'Building Bridges'를 발표하고 문화 수도 공동 추진 및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가 보다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는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가 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이벤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됨
  - 직접적인 예술에 특화된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기보다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지역 예술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는 도시의 매력 핵심 부분으로 예술이 뉴캐슬, 게이츠헤드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며, 그에 맞는 지속적인 예술 이벤트가 지속 마련되고 있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 기관 및 공간, 조직, 단체 등의 창작 거점은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의 협력 파트너로 위치함
  - 이에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지역 협력을 희망하는 외부의 기업, 조직은 이니셔티브의 가입이나 지역 투자를 통해 지역 예술 및 문화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는 네트워크를 제공함
  - 관광파트너로 비미쉬 뮤지엄(Beamish Museum)<sup>12)</sup>, 발틱현대미술관을 포함한 게이츠헤드 콰이, 세이지 음악당, 더 어셈블리 룸<sup>13)</sup>, 잉글리시 허리티지(English Heritage)<sup>14)</sup>, 라이브 씨어터(Live theatre), 타인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씨어터 로얄, 선덜랜드 엠파이어<sup>15)</sup>, 타인사이드 시네마 극장, 기업 파트너로 제너레이터(Generator)<sup>16)</sup>, 등 지역 소재 문화기반시설, 문화 예술 관련 기업 등이 있음
- 각 협력 파트너들은 프로그램이나 협력 사업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하기도 하거나 제외되기도 하며 지역에 기여함

12) 지역 대표 오픈에어 뮤지엄, 조지 왕조 시기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북동부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야외 박물관

13) 근대시기 건축된 건축물이자 문화 이벤트 공간

14) 영국 고중세 유물 컬렉션 및 보존 사업을 하는 영국 자선단체 기업

15) 지역 대표 극장, 웨스트엔드 뮤지컬, 오페라, 발레, 코메디, 음악 공연, 가족공연 등의 공연을 유치 및 소개

16) 북동부의 창의 인재 개발 기업, 예술가, 창조적 기업가를 지원하며 특히 음악산업 분야에 있어 예술 위원회 산하 국립 포트폴리오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역 예술가의 네트워크, 마스터 클래스, 기업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지역 내 예술 공연 행사 기획 등을 하는 지역 기업

## 바. 뉴캐슬 게이츠헤드 지역의 기타 협력적 네트워크

- 뉴캐슬 게이츠헤드 지역은 필요에 의하여 기관 또는 단체가 협력하여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기도 하고 혹은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 지역 내 예술 기관들은 특히 지역 예술 활성화에 있어 여러 주체간의 협력관계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정 이슈나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앞선 선행 사례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이에 지역 내 예술 분야에 따라, 세부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새로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예술 활동에 관한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실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함

〈표 3-3〉 기타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

협력적 네트워크명	NewcastleGateshead Cultural Venues(NGCV)	Art Network North East	Creative Central NCL
개요	20개의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개별 예술 공간의 협력 네트워크 지역 예술분야의 향유확대, 접근성 향상,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한 협력사업 및 정책 관련 협력 추진 업무 추진	영국 정부가 시각예술분야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련한 Contemporary Visual Arts Network의 일부 북동부 지역 현대미술 관련 예술 조직, 기관을 통한 지역 예술가 지원/프로젝트 마련	뉴캐슬 어폰타임 지역에 대한 예술가, 예술 단체 간의 예술가 네트워크 커뮤니티 프로젝트이자 장소
운영 주체	2009년까지 비공식 공동작업 후 2010년부터 협력 파트너십 (담당자 채용 및 운영) 뉴캐슬게이츠헤드이니셔티브가 관계 기관으로 포함됨	영국 예술 위원회원회	뉴캐슬 지역 정부가 운영
협력 참여 기관	발틱현대미술센터, 생명과학센터, 댄스시티, 라이브극장, 북부 무대, 글래스하우스 국제음악센터, 세븐스토리, 씨어터로얄, 타인사이드 시네마, 타인앤 위어 아카이브&박물관	지역 내 4개의 영화관, 16개의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3개의 네트워크, 18개의 무형 기관, 외 지역의 갤러리, 레지던시, 페스티벌, 커뮤니티 공간, 아카이브 등이 참여	북동부 지역 문화 예술 활동가 및 프리랜서, 루버 피엔드 공연장, 알파벳극장
웹사이트	<a href="https://ngcv.org.uk/">https://ngcv.org.uk/</a>	<a href="https://anne.art/">https://anne.art/</a>	<a href="https://creativecentralncl.co.uk/">https://creativecentralncl.co.uk/</a>

- 뉴캐슬 게이츠헤드 문화적 장소(NewcastleGateshead Cultural Venues, 이후 NGVC)는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에 파트너로 있는 지역 내 20개의 문화 기반시설과 공간들의 예술 분야 특화형 네트워크임

- 뉴캐슬 게이트헤드 이니셔티브의 하위 네트워크이자 공식적인 연계 조직임
  - 이들의 경우 20개의 시설과 공간이 모두 함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별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왔음
  - 또한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공간들, 문화예술 활동들을 아울러 2018년부터 지역 경제에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 경제 기여 성과를 가시화함<sup>17)</sup>
  - 공식적인 사업으로는 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 지역 내 반 인종차별 공동 성명 등의 활동 또한 주요 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 게이트헤드 지역의 발틱현대미술센터, 세이지 게이트헤드 음악당 등이 북동지역 예술 기관의 교류 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작동함
- 북동지역 예술네트워크는 뉴캐슬 지방정부와 게이트헤드 지방정부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의 현대미술분야 네트워크임
- 영국 예술 위원회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시각예술분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사업은 각 지역단위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
  - 북동지역 예술 네트워크는 뉴캐슬, 게이트헤드 등 북동부의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시각예술 분야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의 중심점은 북동부 지역 내 유일한 국립 현대미술 관련 기관인 발틱 현대미술관임
  - 이들은 지역 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을 시각예술분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지역 기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노스이스트 아티스트 펀드(지역 예술가 지원 기금) 교부 사업은 중단된 상황임
- Creative Central NCL은 뉴캐슬의 특정 거리인 어폰어타임 지역에 밀집한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이자 커뮤니티 프로젝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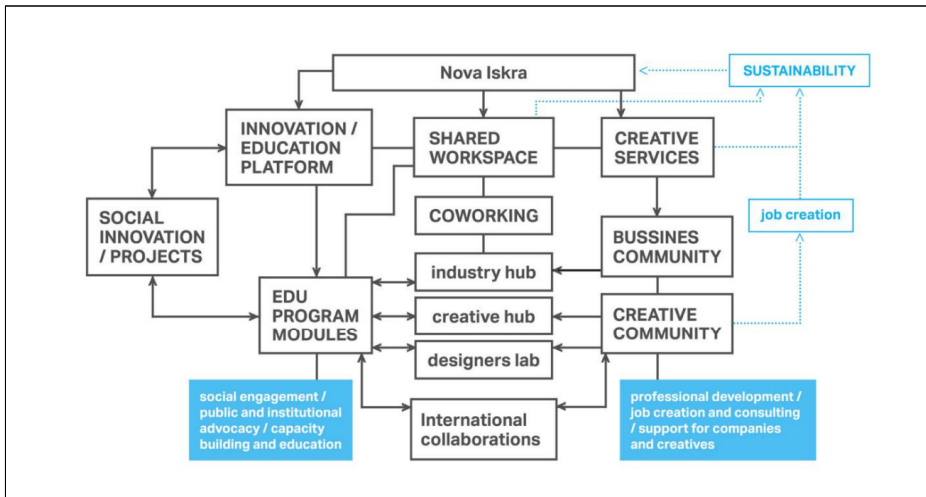
17) 다만 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재 평가를 실시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https://ngcv.org.uk/>)

- 뉴캐슬 지역의 정부가 지역의 문화지구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지구 내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해당 구역 내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루버 피엔드 공연장과 알파벳티 극장,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 활동단체, 프리랜서 등임

## 바. 영국의 창조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창작 거점(Creative Hubs)의 조직화

- EU의 Creative EU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거점 개념이 등장

[그림 3-16] 창작 거점 사례로의 Nova Iskra의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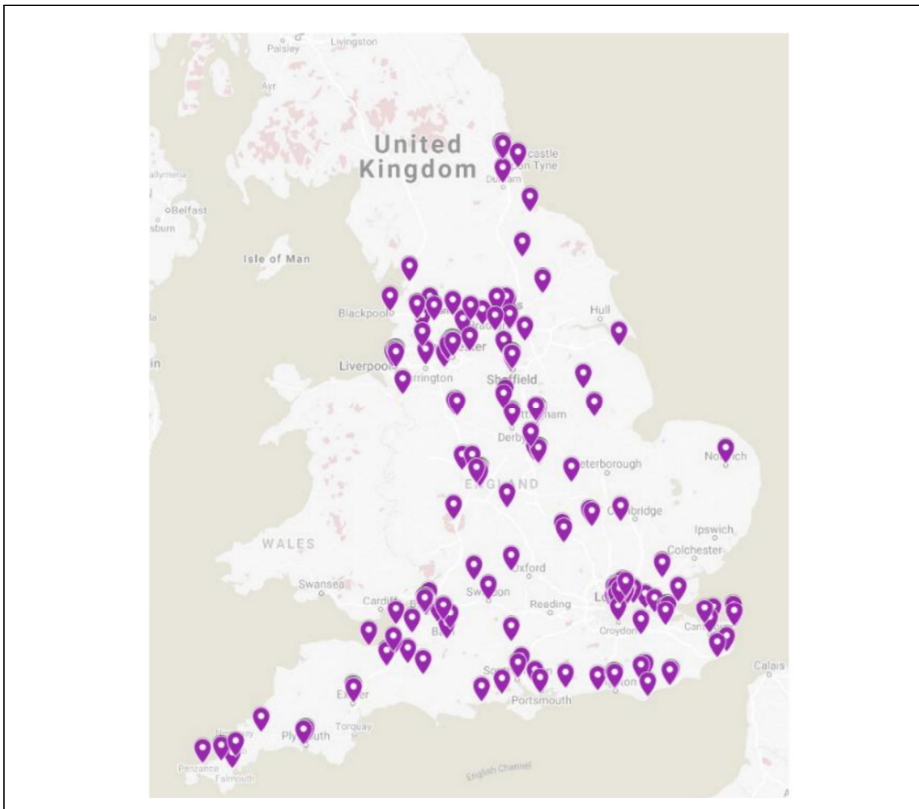
출처: ECHN, 2017, p.13

- EU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2년 단위 프로젝트로 추진된 ECHN(European Creative Hubs Network)은 Creative Europe)은 유럽 전역의 창작 거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유럽 국가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장함
- EU와 영국 전역에 6개의 허브가 있으며 그리스, 독일, 영국, 스페인, 세르비아 및 EU 비즈니스 혁신센터 네트워크 등이 이에 해당함
- EU 국가의 창의성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젊은이들

과 소통하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조직 및 단체 또는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의미함<sup>18)</sup>

- 지역의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창조인력의 집단화를 통한 협력적 시너지 창출 유도
  - 영국의 창작 거점은 영국 문화원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프리랜서와 영세 중소기업이 모일 수 있고 지역의 사회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사회적 장소를 의미함
  - 영국 예술 위원회에서는 총 316개의 지역 예술 창조적 허브를 분류, 도출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17] 영국 창조적 허브 현황



출처: Ellen O'Hara & Deepa Naik(2021), Mapping Creative Hubs in England, British Council, 그림 2

18) ECHN(2017), Creative-Hubs-Madrid-Toolkit, ECHN

- 창작 거점은 중소기업이나 단체가 대부분이나 이들간의 파트너십, 컨소시엄, 협약, 특정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창작 거점은 단일 소득 흐름 즉 특정 사업으로의 단일한 수익 창출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의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의하여 혼합된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지님
- 이는 영국 예술 위원회위원회가 국가 포트폴리오 조직으로 지역 창조적 허브 네트워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타는 결과이기도 함

#### 사. 창조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역 예술 활동 창작 거점의 한계

- 그동안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공공 예술 활성화 사업 등의 지역 예술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의 지역 유입과 지역에서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
  - 안토니 고펜의 <북쪽의 천사> 작품 설치나 이와 연계하여 지역 예술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진 것 외에도,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마련된 축제나, 예술 행사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왔음
  - 또한 그동안 부재했던 지역 예술 기반 시설의 조성 및 구축은 대내외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 상시 머물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전문적 장소이자 지역 민을 만나는 지역 예술 활동 거점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보다 그 성격이 집중되면서 예술 활동은 지역 성장을 위한 행사와 이벤트로 이해되는 경우가 발생함
  - 뉴캐슬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는 지역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해왔음
  - 이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내 특정 지구의 발전 및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예술 활동을 마련하기도 하고,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함
  - 혹은 개별 문화예술 기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함

- 그러나 지역으로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예술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역의 예술 활동에 관한 지자체 예산의 감소로 영국 예술 위원회는 2024년 1월 기존에 선정된 NPO의 3년간 지원 자금 지원을 4년으로 연장하기도 하였으나,
- 뿐만 아니라 창조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기조에 힘입어 최근에는 예술가가 아닌 예술기업으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성장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영국 북동부 지역의 지역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마련된 North East Create Growth Programme이 대표적인 사례임
  - 영국 북동부 지역 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영리 예술관련 기업 16개를 지원하는 코호트 프로그램으로 문화부(CDMs)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주도 지역 성장 프로그램임
- 이는 예술가, 예술단체에 관한 정부 지원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창조산업에 관한 정책에 대한 지원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지역의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역 예술 활성화가 예술가의 활동에 비롯되기 보다는 예술 기업의 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참여 기업은 축제나 기관에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 어린이 대상 교육 개발업체, 라이브 음악 이벤트 사업체, 지역 관광객 대상 지역에서의 예술 경험 및 웰빙 활동 기획 업체, 리더십 및 수학 교육 플랫폼 등으로 예술분야와 관련성이 없거나, 일부 관련업을 하는 기업들임
- 결국 지역 예술 활성화에서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중점 양성하는 상황임
  - 이는 지역의 예술분야 협력적 네트워크가 창작 거점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술 산업의 진흥 체계로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함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 1. 해외 사례 종합 분석

#### 1.1. 프랑스

##### 가. 국립 인증 또는 국립의 지역 창작 거점 조성

- 프랑스의 경우 창작 거점 사례는 국립 시설로 건립 또는 민간 단체를 국가가 소정의 심사와 절차를 통해 국립 거점으로 인증한 경우임
- 이는 창작 거점이 지역마다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반적인 레지던스나, 창작소 등의 창작 거점과 구분하여 지역을 아우르고 지역을 대표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단순히 예술가의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예술가의 창작 거점을 넘어 지역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예술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의 창작거점 역할을 부여함이라 볼 수 있음

##### 나. 정부와 지역을 통한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전략 기관

- 프랑스 창작 거점은 정부의 장르별 예술 정책과 지역 단위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책에 맞추어 마련된 다양한 기금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창작거점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작동됨
- 또한 창작거점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중앙 정부의 담당자, 지역 관계자들이 모이고 상호 창작 거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며 의사 결정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정부와 지역의 정책을 실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임

#### 다. 예술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의 확보

- 창작 거점은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예술가의 창작 및 예술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창작된 예술 작품이 다른 지역,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 소개되고 예술가가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발판이 되어줌
- 이에 여러 지역에 분포한 기관과 조직들과의 협력체가 다양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직접 네트워크를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로 지속 소개되고, 예술가가 지속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게 되며, 창작 거점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님

#### 라. 지역 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으로 문화적 활기 마련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창작거점은 예술가들의 지역 내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활동 시 지역에서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현장 운영 지원을 함께 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은 창작거점이 정책적 운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상시 지역 내에서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향유의 기회를 상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예술가가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기도 하고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지역민에게 향유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기획 운영하기도 함

### 1.2. 영국

#### 가. 협력적 관계가 창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영국의 경우 공공, 민간 등 지역에서의 여러 예술 관련 활동 주체들이 존재하나 이들이 마련하는 지역 예술 활동보다 우선적으로 창작 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 체계는 협력적 관계로의 파트너십임

- 이러한 파트너십은 공동의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혹은 단순한 파트너십 관계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의 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다양한 주체의 집합체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협력적 파트너십 단체를 정책적 지원금의 교부 대상으로 지목하여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유연한 창작 거점을 유도하고 있음

#### 나. 전략적인 예술 활성화 추진체

-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기관, 조직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지역의 예술 활동에 관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는 특히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이는 예술 전문조직이 예술성을 확보해준다면, 마케팅 전문 조직이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지역민에 대한 소구와 호의적 여론을 형성하고, 경영 기획 전문 조직이나 행정 조직은 실제 사업을 기획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예술 활동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함
- 이에 지역은 지역 예술 활성화 관련 사업을 특정 조직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지역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다. 민-관 협력 관계의 유도를 통한 민간 참여의 활성화

- 영국의 창작 거점은 공공-민간, 또는 민간-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의미함
- 특히 공공-민간의 경우 공공 조직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며, 지역 예술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향상하여 자발적인 지역 예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민-관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 예술 활성화 사업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지역 예술 정책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2. 국가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과 창작 거점 정책의 비교

### 가.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 한국의 경우 지역 문화 정책과 지역 예술 정책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기존의 지역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중앙 정부가 정책의 지역 이관을 하기 이전부터 지역문화 정책, 예술 정책으로 구분되었으며, 예술정책의 경우 예술 정책 가운데 지역과 관련한 일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음
  - 이는 첫째,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정책과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이 각각 분리되어 논의 되지 못하고, 둘째, 예술정책 상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에 관한 논의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프랑스의 경우 지역 정책은 지역국이, 지역 예술 정책은 예술국이 구분 추진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추진은 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옴
  - 프랑스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지역 예술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며, 중앙 정부의 지역 예술 정책은 지역을 예술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보며 장르별 지역 예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예술 분야별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은 지역 단위와 중앙 정부 단위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지되,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은 크게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에 대한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조적 역량을 가진 예술가, 예술기업, 예술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영국 전역의 예술 생태계 내에서 지역에 활동하는 역량 있는 예술 활동 주체가 영국 창조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혁신, 지역에서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나. 지역 창작 거점 정책

- 한국의 경우 지역 창작 거점 정책이 별도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거점의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남에 따라 예술 정책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임
  -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의 지역 분관 조성의 형태로,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각 개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필요에 의해 조성 여부, 조성의 형태와 운영의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음
  - 지역 거점에 관한 정부의 지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 정책에서는 나타나는 거점 정책과는 달리 예술 정책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프랑스의 경우 중앙 정부 주도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부처 예술국을 중심으로 장르별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을 설립, 지정 등의 방식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장르별 창작 거점의 유형과 운영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 그러나 지역 창작 거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창작거점의 선정과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중앙의 예술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적 태도를 전제한다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민간 주도 창작 거점의 조성 및 운영 정책을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창작 거점의 조성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축소하는 경향이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중앙 정책에 대한 지역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임
  - 영국의 경우 별도의 창작 거점을 조성, 혹은 지정하지 않고 주로 지역(공공)과 지역 내 민간 개인, 조직, 단체간의 협력적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창작 거점으로 인식함
  - 개인, 단체, 조직이 유·무형의 창작거점이 됨에 따라 창작 거점은 지역의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의 예술가들을 통해 창작 활동의 기회를 만들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임

- 이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여러 주체들 가운데 거점 공간을 보유 한 경우 공간에 기반하여 창작 거점이 이루어지기도 함
-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중앙 정부는 지역 창작 거점 정책은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과 창조적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창조적 역량을 지닌 예술가, 예술기업, 예술 단체가 창작 거점 자체로 인식하고 공간보다는 지역 예술 활동 주체가 다양한 유형의 창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3-4〉 국가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창작 거점의 비교

국가	한국	프랑스	영국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관련 추진 마련 필요</li> <li>▪ 지역문화정책과 예술정책 가운데 일부 지역 예술 관련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도의 지역 문화예술 정책 수립</li> <li>▪ 중앙 정부는 예술 장르별 예술 생태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권역화 및 지역 대상 창조산업으로의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li> </ul>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주도의 지역예술 활성화 정책에서 지자체 주도로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예술 정책은 지자체</li> <li>▪ 지역 예술 생태계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 민간-민간 등 협력적 관계</li> <li>▪ 민간으로 점차 이동</li> </ul>
중앙정부의 지역창작 거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시설의 지역 분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예의 국립시설 조성</li> <li>▪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의 지정 및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민간 창작자/단체의 창작 거점 지정</li> </ul>
지역의 창작 거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체적 창작 거점 조성 및 운영</li> <li>▪ 정책적 기능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민간 협력 창작 거점의 조성 및 운영</li> <li>▪ 지역 단위별 정책 지원 사업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지역 내 예술 관계 주체 간의 협력 관계 지원</li> <li>▪ 지역 단위 내 활동 공공, 민간의 창작 거점화를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화</li> </ul>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시, 창작소, 입주예술가 간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시, 창작소, 국내외 인적, 물적 네트워크 허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한 협력을 통한 사업단위 프로젝트</li> <li>▪ 인적 창작 허브</li> </ul>

출처: 연구자 정리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제4장

# 결론 및 제언





##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시사점 및 정책 고려 사항

---

### 1.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지역 예술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 가.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부재

- 국내 지역 예술 정책은 지역 문화 정책과 예술 정책의 혼재 가운데 체계적으로 정책적 검토와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지역 단위에서 예술가의 지역 활동 및 지역 예술 활성화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도적 추진 주체와 방식의 혼선을 야기함
- 프랑스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역 간 지역 예술 활성화의 정책적 추진 방향과 방식이 다르더라도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이 필요

#### 나. 지역 예술 활성화 주체로의 민간 고려 논의의 불충분

- 국내의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은 공공 중심으로 조성된 일부 시설 형태가 중심이며, 지역에 일부 민간 주도의 레지던시나, 창작소 등 유사 개념의 조직,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그 역할과 성과가 미미함
- 이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공공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나, 실제 지역 예술 활성화의 주체는 지역민, 지역의 민간 기업과 조직, 지역 예술가 등 지역 예술 생태계 내의 직접적 활동하는 주체인 민간임
- 프랑스의 경우 공공 주도 정책을 통한 창작 거점의 조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창작 거점의 운영 주체 및 사업의 실행은 민간이 주도하며, 민간에 대한 공적 인증을 부여하여 민간 창작 거점이 지역 예술 활성화의 직접적 추진 주체로 활동하도록 유도함

- 영국의 경우 민간에 대한 정책 추진이 최우선되며, 공공-민간, 민간-민간의 형태 등 민간이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 주체간 협력과 관계 기반 지역 예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그러므로 지역 예술 활성화이자 창작 거점으로서의 민간 적극적인 참여 또는 민간의 주도에 기반한 지역 예술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지역 예술 생태계 관점 도입 전환 필요

- 프랑스의 경우 장르별 지역 예술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 창작 거점을 조성 및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지역 경제, 지역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태계 내에 지역 예술 정책의 기여를 목적으로 창작 거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각각의 정책은 정책 목표와 방향은 다르나, 지역 생태계와 지역 예술 생태계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과 연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 좁게는 지역 예술 생태계, 넓게는 지역 생태계 차원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 추진의 핵심 추진 체계로 지역 창작 거점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라.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의 구심점으로서의 창작 거점 부재

- 창작 거점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의 의미로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지역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창작 거점의 지역 예술 활성화 역할과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임
- 프랑스의 경우 중앙 정부, 광역, 기초 등 지자체의 단위별 정책의 구심점이 되며, 지역에 예술가들의 유입, 활동,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예술 활동의 성과를 국내외의 지역 외부로 확장하는 역할을 창작거점이 추진, 지원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지역 내 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역량을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모으고, 참여를 유도하며,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여 좁게는 지역

예술로 넓게는 지역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작거점 자체가 작동하는 추진체  
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 예술 활성화 추진체로의 창작 거점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 지역 예술 활성화 정책 추진 고려사항

### 가. 정부-지역의 역할 명확화

-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는 공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의 역할이 명확하여 각각이  
창작 거점에 지원하는 방식, 창작거점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음
- 예술가의 지역 예술 및 지역 예술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역시 중앙 정부와 지역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보완이 요구됨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정부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과 의견 교류  
에 기반하여 지역이 정책을 추진하되 이와 관련한 중앙 정부의 협력 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보완의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인식 확립

- 국외 사례는 공통적으로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민을 염두하고, 지역민에  
게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여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은 예술 향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예술가가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민을 고려한 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의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자각하  
고, 활성화 하여 예술가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예술가가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민-예술가의 상호 호의적 관계 형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지역을 넘어선 협력 환경 조성

- 국외 사례의 경우 지역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창작거점이나 창작거점이 다른 유형의 창작거점이나 다른 지역의 창작거점과 협력하기도 하고, 혹은 인접 지역 간 새로운 협력체를 구성하여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음
- 지역 간 예술가의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가의 지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이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의 가치와 가능성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역 간의 혹은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관련 주체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라. 양질의 지역 예술 기획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모색

- 국외 사례의 창작 거점은 프랑스와 같이 전문 예술 기획을 위한 국립 또는 국립인증 조직으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영국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유연한 협력 관계 파트너들을 통해 양질의 지역 예술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개별 예술가가 지역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문화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데는 예술가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이 지역에서 예술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예술 기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예술 기획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역량을 신장하고 예술가의 작품을 지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 프로그램이기도 하므로, 이를 전문성이 축적된 전문가의 활용과 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제2절 창작 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 1. 지역 예술 활성화 추진체로의 창작 거점 설정

#### 가. 지역에 있는 창작거점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 거점으로

- 기존의 지역 예술 창작 거점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 공간 및 기회 제공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거점은 지역의 예술 활력을 함께 고려하여 기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전달 체계로의 창작 거점의 지정 또는 마련이 필요함
  - 창작 거점의 정책적 전달 체계로의 역할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정부-지역, 공공-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를 둘러싼 정책 추진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사례]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제주청년센터)

##### [그림 4-1] 제주청년센터 지역 거점 지정



출처 : 제주의 소리, 제주청년센터,  
국무조정실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2024.04.05.일자 기사

- 지역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4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지역 거점 청년 지원센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3항에 따라 중앙청년센터와 시·도 청년센터의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 2024년 1월 각 광역 자치단체가 설립한 청년센터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제주 청년센터가 지정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임
- 청년정책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거점 공간 활성화를 통한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상담을 추진 할 예정임

- 특히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작품의 창작, 관련 정보 지식의 집적 등이 중요함
  - 한국은행은 지역의 자산 유형별 세부 항목에 따라 지역의 생산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지식 스톡’으로 새로운 지식과 지식 재산의 창출,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파급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함(정민수 외, 2024)
  - 이를 지역 예술계에 적용하여 볼 경우 창작 거점은 지역의 예술 생산성을 위한 지역 예술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역할 또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의 기능, 작품 창작의 활성화 및 예술 활동의 기회 기능, 지역 예술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집적 기능 등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음

#### 나.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계 주체의 네트워크 구심으로

- 창작 거점이 자체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과 관련한 혹은 예술가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민간의 협력적 관계 구심점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협력의 역할을 창작거점에 부여하여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하드웨어 사업이 지역 거점 관련 사업 전반에서 약 58.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보다 전략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어야한다고 박정은 외(2021)은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
  - 거점 지역 또는 거점 시설 등 추후 창작 거점의 논의에서 우선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은 창작 거점이 어떠한 형태의 시설이나 공간이어야 하느냐 보다 창작 거점의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역할과 기능에 보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예술 활성화의 경우 중앙-지역, 지역문화와 예술 정책간의 협력과 논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거점의 네트워크 구심 기능은 핵심 전략 추진을 위해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2. 예술가의 예술적 성장에 대한 지원 체계로의 역할

### 가. 지역을 예술가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의 기관으로

- 기존의 창작 거점이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대응하여 전략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가가 지역의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지역에서 지속 활동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창작거점은 예술가가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과 관계 맺으며 지역 내에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들과 지역의 접점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을 통해 예술가들이 활동 기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을 만나고 소통,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술가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기초 정보의 제공과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통해 예술가의 지역 유입 활성화를 유도

#### [사례] 프랑스 파리의 레프리고 (Les Frigos)

- 1921년 지어진 프랑스 파리의 냉동창고로 1980년부터 지역의 장인과 예술가에게 레지던스로 임대되기 시작함
- 총 87개의 작업장에 건축가, 출판사, 기업, 디자이너/스타일리스트, 현악기 제작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120명이 입주하여 활동하는 장르를 넘나드는 레지던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5월 말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레지던시가 민간에 개방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예술가들의 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 시키는 사례이기도 함
- Art frigos 협회가 레지던시를 운영하며 예술가들이 지역에 유입하고 지역민을 만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입주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30년 이상의 영구 계약 또는 워크샵이나 프로젝트 단위에 따른 단기 입주 등이 가능하며 예술가와 프로젝트 제안, 입주 작가의 작품을 통한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함에 따라 예술가들이 활동 유형과 창작 여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역 활동의 계기를 마련함

[그림 4-2] Les Frigos 전경



[그림 4-3] Les Frigos 실내 전경



출처 : <https://parisjetaime.com/eng/culture/ateliers-d-artistes-les-frigos-p1043>

## 나. 지역에서도 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의 기관으로

-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은 주로 단발성 지역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속 예술가가 머무르며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지역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 소통, 교류하여 예술가가 지역에서 정주하면서도 지속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창작 거점이 체계적으로 기획, 프로그램화 할 수 있음
-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이 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의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점 추진체로 창작 거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예술가의 활동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이 예술가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반으로의 의미를 인식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은 지역 전반에 걸쳐 필요한 관점이나, 실제 고려 및 추진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여건 조성과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각 지자체의 개별 역량에 의존해야함에 따라 결국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소수의 지자체 주도 관심과 정책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

[그림 4-4]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가 활동주기별 지원사업의 소개



출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dgfca.or.kr>



- 이를 위해 지역의 창작 거점은 각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관련 사업을 마련하는 선행 모델을 제시하고, 예술가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에서의 예술가 성장의 중요성을 지역이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함

#### 다. 세계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예술 활동가의 교류 기반으로

- 창작거점이 구축한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이 국내외에 소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개별 예술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예술 활동을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작거점이 국제 예술 허브로 작동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 MOU 등 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제 교류 업무를 주요 수행 업무로 추진하여야 함
  - 브르타뉴 국립극장과 같이 창·제작에 있어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형태로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할 경우 국제적인 예술가가 지역으로 유입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가 국외 예술 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미국 버몬트 지역에 마련된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는 예술가들의 대내외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마련된 스튜디오 센터로 국내외 예술가들을 입주 시켜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 예술가,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게 하여 지역 내 예술 활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며, 지역 예술가가 국제적 활동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사례] 네트워킹형 레지던시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Vermont Studio Center)

- 1984년 예술가들이 설립한 스튜디오로 커뮤니티, 협업,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시임
- 일정 기간 동안 예술가와 방문교수, 미술관계자가 만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레지던시이자 창작 거점
- 60여명의 작가가 2주~4주 단위로 입주하여 1년 내내 지역 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양한 연령층과 입주의 형태를 마련하여 일시적 커뮤니티를 만드는 네트워킹형 레지던시는 전국, 전세계 각지에 흩어진 예술가들을 집적하고 인맥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운영
- 미국 시골인 버몬트 지역에 국제적인 예술가들을 유입하고, 이렇게 유입된 예술가들은 지역과, 스튜디오 캠퍼스 내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이 지역 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 4-5]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전경



[그림 4-6]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실내 전경



[출처 : <https://www.transartists.org/en/air/vermont-studio-center>]

- 지역의 예술 활동이 지역을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능을 창작 거점이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예술 도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음
  - 지역 내에 국제적인 예술 협력 사업의 개최는 지역이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무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우리의 지역이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함

### 3. 지역 예술 활동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확대

#### 가. 지역 예술가가 지역 예술계, 지역으로의 영향 확대

- 지역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술 활동의 촉진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예술 활동은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 자체가 지역을 배경 또는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내용에 지역이 내포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성돈, 김정인(주성돈 외, 2015)은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자원의 결합을 통해 '지역 지향성'을 가지고 창작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예술이 개인의 취미나 기호를 넘어 사회적 존재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이 명확한 활용 목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주성돈 외, 2015, 1113쪽)
  - 주성돈, 김정인의 연구(주성돈 외 2015)는 지역 예술 활동으로 '축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용 목표가 축제의 성공에 국한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

도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나. 지역 내 문화 활력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의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

- 예술가의 예술 활동은 지역민의 양질의 예술 향유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문화적 활력을 만드는 기반이 됨
  - 지역 내에서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일상에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의 예술 활동의 경험은 지역에 대한 문화적 만족도를 넘어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면 지역의 문화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향유로 나아갈 수 있음
-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최근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지역민에 대한 예술가의 예술 활동의 영향도 함께 고려가 될 필요 있음
  - 예술가는 의 지역 예술 생태계의 주체로서 지역 예술 활동이 지역을 다루는 내용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세계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며 창조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대상으로 논의 되어 옴(박신의, 2012)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동의 가치 발현과 공공성 증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내재된 지역의 공공성에 연구(김경은, 2010), 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미원, 2017) 등 예술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은 그러므로 지역, 지역민과 밀착되어 나타나야 하며, 지역의 문화적 소산으로의 가치를 예술가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에서 예술가는 장소와 관계없이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 자체가 지역에서 나타날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인지하여 나타나야 함
  -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과 예술가의 지역 예술 활동의 관계에 대한 예술가 차원의 인식과 예술가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려에 관한 연구 및 논의로 이어지는 않고 있음
- 지역민의 예술 참여에 대한 고려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예술을 매개로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김인설(2013)은 예술에 대한 참여가 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개인의 회생과 치유를 돕고, ② 고질적인 사회문제나 관념들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③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친화적으로 이끌어내고, ④ 다양한 이해관계와 계층 간 소통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⑤ 개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그 효과를 정리함(김인설, 2013)

#### **다. 지역 예술 활동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접점으로**

-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지역 사회 내 예술의 관심을 유도하고, 예술적 역량으로 지역 사회의 새로운 관점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예술 활동과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술가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지역 내 관계 형성 및 협력에 기반하는 예술 활동을 전제하여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예술가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가가 창작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 및 기업과의 매칭사업 및 참여를 전제로 함

**[사례]광주문화재단 예술로 사업**

-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5인으로 구성된 14개의 팀이 지역 기관 및 기업과 매칭되어 지역 기관 및 기업의 문제에 대해 예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매칭 사업을 추진
- 2020년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음
- 창작지원금으로 1달에 1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되 매칭 사업을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 문제 참여를 유도

- 서산시의 경우 창작 공간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 사업을 공모할 당시 지역민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에의 참여 등을 유도하여 예술가의 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사례]서산시 지역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

- 지역 내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작가(기수별 6명)를 모집
- 입주작가는 작업실 제공을 비롯하여 전시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및 도록 제작의 지원 혜택이 있음
- 지원사업은 입주 작가가 지역민이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축제(서산시 도시재생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지역민과의 접점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라. 지역 문화 경쟁력으로서의 지역 예술의 집적

- 예술가의 예술은 예술가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지역예술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짐
  - 예술가들은 지역에서 예술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예술가들과 교류, 소통하며 창작활동을 지속하여 지역 예술계를 형성함
  - 예술가들이 지역을 토대로 예술적 성장을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지목되기도 하고, 지역 내에 다른 예술가들에게 독특한 예술적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며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개성을 만드는 주체가 됨
- 예술가의 예술 활동은 예술 속에 지역을 반영하고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자산이 될 수 있음
  - 예술가는 예술 활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감

- 이에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기도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 정보를 집적하고 지역 창작 거점간, 지역 창작 거점 활동 주체들을 위한 정보와 교류의 플랫폼 조성이 함께 논의 및 고려될 필요가 있음

**[사례]영국의 개방형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Open Public Service, OPS 네트워크**

- 다양한 지역의 여건과 지역 수요에 대해 개별적 대응이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음에 따라 지방 정부 주도 및 결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중앙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지역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적 지원과 사업의 정보를 집적, 소개하는 정보 플랫폼
- 주로 자율 학교의 신설, 다양한 형태의 의료 및 사회복지 활동 보조의 지원, 개인의 수요에 따른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이 이루어져 온 OPS임에 따라 그 사업의 구조와 내용이 지역마다, 추진 주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 OPS 네트워크의 정책적 정보의 통합 제공 뿐만 아니라 제공중인 공공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함
-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 거점 정책에 있어서 OPS 네트워크는 개별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타날 창작 거점의 지역별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창작 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성과를 집적, 측정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과 국내외의 기관 및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와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마. 지역을 반영한 예술 활동 기획의 활성화

- 지역을 반영한 예술 활동은 예술가의 창작과 활동 성과가 지역으로의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접점임
  - 현대사회는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예술가들이 이동하며 다양한 창작 환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예술가들과 교류, 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역을 넘어선 다양한 영향을 수용함
  - 또한 온라인을 통한 물리적 거리나 공간을 초월하여 예술 활동에 영감을 주는 환경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성이 예술가의 창작 성과에서 나타나기 쉽지 않음
- 지역을 반영하는 예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
  - 지역이 내용상에 나타나거나, 지역의 특산물, 주요 문화적 상징물이 등장하는 경우, 혹은 지역을 주제로 하는 경우 등 내용 차원에서 지역을 다루는 경우는 예술 전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창작의 내용은 예술가의 자율성에 따르므로 예술가가 최대한 지역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 활동 자체를 시민이 향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이에 여타의 예술 분야보다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 자체가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창작, 공표, 향유 될 수 있음
  - 프랑스의 CNAREP은 지역의 공간과 내용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예술 분야인 ‘거리예술, 공공공간에서의 예술’을 위한 창작거점이며, 그래피티나 공공미술 역시 지역 공간을 활용한 예술활동이며, 풍물굿이나 마당놀이는 전통적으로 마을이나 지역의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자 축제형태의 예술 활동임
-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을 반영한 예술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장르에 대한 지역 수요가 매우 높음을 시사함
-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공공공간 점유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작품 창작 및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4-1〉 광역 지자체의 거리예술, 공공미술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4.07기준)

지자체명	거리예술 관련 조례	공공미술 관련 조례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조례 없음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16)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동상 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도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명	거리예술 관련 조례	공공미술 관련 조례
충청남도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연구자 정리

-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거리예술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공공 장소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공공 미술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수립하고 있음
- 지역의 예술 활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거점이 지역을 반영한 예술 즉 거리예술이나 공공미술 등의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예술 장르를 지역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창작거점을 통해 발굴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보고서 및 학술 논문]

- 김경은(2011), 조형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의 공공성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 26집 1호
- 김선기, 박승규(2015),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 창출 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새미(2017), 영국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다양성과 우수성의 문제, EU연구 2017년 제 46호
- 김인설(20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문화정책논총, 제27집 2호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박신의(2004), 세계 문화인들 움직이게 만드는 프랑스 문화정책, 아르크 〈문화예술〉, 2004년1월호
- 박신의(2012)‘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
- 박정은, 임상연, 김유란, 정명운, 성순아. 2021.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편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박지은(2017), 프랑스 신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문화정책과 예술가 지원 및 앵페르미평 제도 개혁의 방향, 예술인, 예술인 복지재단, 2017.7월호
- 양혜원(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병록, 배진아(2022), 지역 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전북연구원
- 윤상현(2024), 글로벌 대구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설립방안,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십포지엽 자료
- 윤주선, 김영하(2019),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미원(2017), 커뮤니티연극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예술연구 제 18호
- 조성철, 박소영, 이윤석, 최예슬, 김경민(2023),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 주성돈, 김정인(2015),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성공요인 분석: 일본지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 27권 4호(2015 겨울)
- 정민수, 이영호, 유재성, 김의정(2024),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제 2024-15호
- British Council(2021), Mapping Creative Hubs in England, British Council
- Ellen O'Hara, Deepa Naik(2021), Mapping Creative Hubs in England, British Council
- Maeve Blackman, Fiona, "The Angel of the North: Public Art and Wellbeing",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urham University, 2014.

####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주요정책(2023),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cf.or.kr>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dgfca.or.kr>
- 서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ssusc/>
-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wcf.or.kr/>
- Lieux Publics 홈페이지 <https://www.lieuxpublics.com/>
- Sur le pont 홈페이지 <https://www.cnarsurlepont.fr/>
- 버몬트 스튜디오센터 홈페이지 <https://www.transartists.org/en/air/vermont-studio-center>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
- 프랑스 파리 레프리고 홈페이지 <https://parisjetaime.com/eng/cultur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년 과학문화 거점센터 및 과학문화 도시 선정, 2021.01.07일자
- 제주의 소리, 제주청년센터, 국무조정실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저, 2024.04.05.일자 기사
- 한겨레, 4조3천억 투입...“10개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2018.10.25.일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성군 아트케이션 보도자료 2024. 9.26일자
- "Nazi..But Nice?", The Gateshead Post, 1995.02.02.일자

---

# ABSTRACT

##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Regional Arts Activities Through Creative Hubs: Focusing on Overseas Cases**

Ji-Hye, Byun

This study is for ways to revitalize regional arts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social local crisis. This study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promotion system for revitalizing regional arts activities and established regional creative hubs as part of local policies. This is an attempt to find ways to revitalize local arts activities through regional creative hub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gion hub policies and local arts-related policies, an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entral government's top-down policy for the regional arts community and the demand for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arts policies. In addition, it confirmed that regional hubs can be an important medium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revitalize regional arts, arts activities, and the need for arts policies for this.

The study looked at the cases of France and the UK, which are cases that are promoting similar policies to the concept. In the case of France,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a strong policy of establishing regional hubs, and we looked at cases where the government cooperated with regions to establish them and cases where the private sector established hubs and supported them. In the case of the UK, we looked at cases of operating regional art revitalization hubs through cooperative bodies within regions and the private sector. Although each foreign case has clear differences in policy conditions from Korea,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them as they are, they can be considered cases where we can confirm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eative hubs when introducing a policy system for revitalizing regional arts. Accordingly,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each case and policy measures for introducing creative hubs to revitalize regional arts activities were presented.

**Keywords**

Local arts, regional arts, arts activities, cultural policy, art hub, creative hubs, local policy

## 집필 내역

연구 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4년 10월 2일

발행일 2024년 10월 2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10-9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3>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변지혜(2024), 창작거점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3>



[www.kcti.re.kr](http://www.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 791171 980109  
ISBN 979-11-7198-010-9